

반도체 정상궤도 복귀 성으로 증명한 리더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3주년

반도체 영업이익 12.1조 회복
매출 86조, 사상 최대치 경신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 강화
R&D 투자로 미래 기술 선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았다. 대법원 무죄판결 이후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 행보에 나선 그는 “성으로 리더십을 증명하겠다”던 소신을 바탕으로 사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삼성의 버팀목인 반도체(DS)부문이 침체를 딛고 회복 기세를 보이면서 이 회장의 경영기조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따른다.

〈관련기사 3면〉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로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10월 27일, 부회장 승진 10년 만이자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성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지 4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다.

이 회장의 취임 3년 동안 가장 주목받는 사업 성과는 단연 반도체 부문이다. 지난 3년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다소 부진을 겪었다. 특히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산업의 흑반기 속에서 시장 규모는 2023년에 전년 대비 11.1% 감소하며 침체가 본격화됐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임원 세미나에서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 경영진부터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사측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시 글로벌 D램 1위 자리를 SK하이닉스에 내주며 삼성전자 안팎으로 위기감이 번지던 상황이었다.

이 회장은 반도체 부문의 정상 궤도 복귀를 위해 근원 경쟁력 회복에 주력

해 왔다. 그 결과 위기론이 제기됐던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 3분기 삼성전자는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영업이익은 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매출도 8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상반기 침체했던 반도체 사업이 크게 개선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 회장이 직접 글로벌 현장을 누비며 경영 전면에 나선 점이 있다. 테슬라, 애플,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성과가 이어지며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테슬라와 23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8월에는 애플의 아이폰용 이미지센서로 추정되는 칩 공급 계약도 확보했다. 최근에는 70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오픈AI의 초거대 AI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어려운 여건에도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해 온 점도 주목된다. 삼성전자의 연구개발비는 올해 상반기에만 18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 지수가 나오고 있다.

/뉴스시스

‘코스피 4000’ 시대 열었다 삼성엔 ‘10만전자’ 새 역사

반도체 초호황·APEC 기대감
SK하이닉스 53.5만원 최고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돌파하며 국내 주식 시장의 새 역사를 열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호황기) 기대 등으로 ‘십만전자’ (주당 10만원)의 벽을 깼다.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57% 오른 4042.8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2.22% 상승한 902.70에 마감했다.

〈관련기사 3면〉

‘코스피 5000’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는 지난 6월 20일 3000선을 넘은 이후, 석 달여 만인 지난 달 10일 종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 3314.53을 기록했다. 이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채 한 달이 안 된 지난 2일 3500선마저 뚫었고 거침없이 달린 끝에 4000선을 찍었다. 연초 이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68%로 주요 30여 개

나라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24% (10만2000원), 4.90% (53만5000원) 뛰며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썼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3주년을 맞은 이날 삼성전자는 ‘십만전자’ 고지를 밟았다. 지난 2018년 액면 분할 이후 한 차례도 넘지 못했던 ‘10만원 벽’을 이날 넘어선 것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최근 잇따르는 수주 소식, 주가 부양을 위한 삼성의 자사주 매입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코스피를 4000선으로 올려놓은 건 외국인투자자의 매수세였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과 미·중 관세 전쟁 1년 ‘휴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대한 기대감 등에 베풀었던 것이다. 외국인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19조원이 넘는 주식을 샀다.

〈3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lkova@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세계란 무대에서 국가대표란 이름으로

업비트가 APEC 2025
성공 개최를 응원합니다

2025 APEC CEO Summit 퓨처테크포럼 : 디지털자산
Connecting the Future of Finance

일시 2025. 10. 30. 오전 10시
장소 경주예술의전당 원화홀

APEC CEO SUMMIT KOREA 2025
APEC CEO SUMMIT 2025 공식후원사 업비트

두나무 주식회사 준법감사인 심사필 제25-0189호 (25.10.13~26.10.12)

정기선 “가능성, 현실로 만들기 위한 글로벌 혁신동맹 필요”

〈HD현대 회장〉

HD현대, APEC 포럼

혁신기술 통한 조선업 가능성 제시
“HD현대, 첨단 역량 기반으로
美 해양 르네상스 위한 파트너”

HD현대가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미래 조선업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의 시작을 알렸다.

HD현대는 27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문무홀에서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퓨처 테크 포럼: 조선’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조선의 미래를 그리다(Shaping the Future of Ship building)’를 주제로 진행됐다.

퓨처 테크 포럼에는 정기선 회장을 비롯한 HD현대 임직원, 헌팅턴 잉글스, 안두릴, 지멘스 등의 포럼 연사, 조선업계 관계자, 학계 관계자, 정부 및 군 관계자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기조연설을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27일 경북 경주 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문무홀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퓨처 테크 포럼: 조선’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HD현대

말아 혁신 기술을 통한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당부했다. 정기선 회장은 “인공지능(AI)은 선박의 지속가능성 및 디지털 제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가능성을 현

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는 긴밀한 글로벌 혁신 동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HD현대는 첨단 역량을 기반으로 미국의 해양 르네상스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AI 혁신 기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조선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등 조선업의 미래 비전과 실행 방향도 제시했다.

주요 파트너사들도 연사로 참여해 혁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존 킴 안두릴 한국 대표는 드론과 미사일 등 복합 무인 위협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대비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방위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솔루션을 소개했다. HD현대와 안두릴은 무인수상정(USV) 공동 개발을 목표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김형택 HD현대 합정AI전문위원은 HD현대의 자율운항 기술과 안두릴의 임무자율화 기술을 결합시켜 무인함정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패트릭 라이언 미국선급(ABS) 최고 기술책임자(CTO)는 AI, 디지털 트윈, 스마트 조선소, 자율운항 시스템, 원격 검사·로보틱스를 미래 조선업을 이끌 핵심 기술로 제시했다.

이정민HD현대AI전략팀장은 ‘데이터와 AI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해양 산업’ 비전을 공유하고, 자체 개발한 ▲오션와이즈(OCEANWISE) ▲HD에이전트 ▲명장 에이전트 등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AI 솔루션을 소개했다.

조보만 지멘스CTO는 AI 기반 디지털 트윈과 ‘마린 디지털 스레드’를 중심으로 설계-생산-유지보수를 연결하는 지능형 제조 혁신 전략을 제시하며 전공정의 생산성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릭 슈빙 헌팅턴 잉글스 부사장은 함정 사업 역량과 기업 미션을 소개하고 한·미 조선 협력 확대 계획을 밝혔다. 양사는 미 해군 군함 건조 역량 확대, 차세대 군수지원항 프로젝트 등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로보틱스·AI 분야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 교류, 해상 전력의 전 생애주기 지원 및 정비체계 구축 협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차세대 낸드 ‘AIN 패밀리’ 공개

美 OCP 글로벌 서밋 참가
“성능·대역폭·용량 측면 최적화
AI시대 고객들 수요 충족시킬 것”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구현에 특화된 차세대 낸드 스토리지 솔루션을 선보였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3~16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너제이에서 진행된 ‘2025 OCP 글로벌 서밋’ 행사에 참가해 차세대 낸드 스토리지 제품 전략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AI 추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낸드 스

토리지(저장 장치) 제품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당사는 ‘AIN(에이아이엔) 패밀리’ 라인업을 구축해 AI 시대에 최적화된 솔루션 제품으로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행사 둘째 날 진행된 이그제큐티브 세션에 김천성 부사장이 발표자로 나서 AIN 패밀리를 소개했다. AIN 패밀리는 성능, 대역폭, 용량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 최적화된 낸드 솔루션 제품들로, 데이터 처리 속도 향상과 저장 용량 극대화를 구현한 제품군이다.

AIN P는 대규모 AI 추론 환경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 입출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솔루션이다. AI 연산

과 스토리지 간 병목 현상을 최소화해 처리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대폭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회사는 낸드와 컨트롤러를 새로운 구조로 설계 중이며 2026년말 샘플 출시 계획이다.

이와 달리 AIN D는 저전력, 저비용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초점을 맞춘 고용량 솔루션으로 AI 데이터 보관에 적합하다. 기존 QLC(쿼드레벨 셀) 기반 TB(테라바이트)급 SSD보다 용량을 최대 PB(페타바이트)급으로 높이고, SSD의 속도와 HDD의 경제성을 동시에 구현한 중간 계층 스토리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AIN B는 낸드를 적층해



발표를 진행한 SK하이닉스 김천성 부사장(ESS D Product Development 담당). /SK하이닉스

대역폭을 확대한 솔루션이다. 이는 ‘H BFTM’로 불리는 기술을 적용한 회사의 제품명이다. HBF는 디램을 적층해 만든 HBM과 유사하게 낸드 플래시를 적층해서 만든 제품이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HBM 개발, 생

산 역량을 보유한 SK하이닉스는 AI 추론 확대, 대규모 언어 모델(LLM) 대형화에 따른 메모리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AIN B 연구에 착수했다. 대용량, 저비용의 낸드에 HBM 적층 구조를 결합한 것이 핵심이다. 회사는 AIN B를 HBM과 함께 배치해 용량 문제를 보완하는 구조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안현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OCP 글로벌 서밋과 HBF Night을 통해 AI 중심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AI 메모리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성장한 SK하이닉스의 현재와 미래를 선보일 수 있었다”라며 “차세대 낸드 스토리지에서도 고객과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해 AI 메모리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이 발행 빅테크가 유통 담당”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구상
“화폐, 기술문제 아닌 신뢰의 문제
‘혁신’ 위해 제도적 울타리 세워야”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두고 은행권 중심·점진적 도입 구상을 내놴다. ‘혁신은 수용하되 화폐는 신뢰로 작동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발행은 공신력 있는 ‘은행권’이 맡고 유통·서비스 혁신은 ‘비은행(빅테크 등)’이 담당한다. 유관부처 협의기구와 예금토근과의 공존으로 시스템 안전장치를 촘촘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준홍 한은 결제정책팀장은 “화폐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라고 못박았다.

한은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달러가 99.7%를 차지한다. 유로 0.2%, 기타 0.1%에 불과해 통화대체·시노리지 유출 논쟁이 불가피하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7조3000억원), 원화에치금(10조7000

억원), 시가총액(104조1000억원)이 빠르게 늘면서 규제·상장 여하에 따라 거래자금의 일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완전한 통화로 기능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페킹’과 ‘코인런’을 최우선 위험으로 꼽는다.

박준홍 팀장은 “준비자산이 안전하더라도 원하는 시점과 가격에 현금화하지 못할 두려움 때문에 상환 요구가 몰릴 수 있다”며 지난 2023년 실리온밸리은행(SVB) 사태 당시 USDC가 0.88달러까지 급락하고 78억달러 규모의 상환 요구가 몰린 사례를 들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100% 디지털 환경에서 움직여 기존뱅크런보다 규모는 더 크고 속도는 더 빠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코인=1원”은 사적 계약으로 예금자보호·최종대부자 기능이 적용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보호 공백과 자본·외환 규제 우회 가능성, 금산분리 상충과 은행 자금중개 약화도 언급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추정치를 인용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국제 매입) 시 미국 3개월물(국채) 수익률 2.5~5bp(1bp=0.01%포인트) 하락, 상환(국제 매각)시 6~8bp 상승 가능성을 제시했다. 발행·상환만으로도 단기금리가 움직여 통화정책 전달경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 측면에서는 ‘소매예금 이탈→대출여력 악화→조달·대출금리 상승’ 경로가 취약부문 신용공급을 제약할 수 있다.

한은은 “혁신을 막자는 것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라며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한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은행 규제 체계에서 관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전략동반자 관계 중심 역내 협력강화 제안

李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27일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중심으로 한 역내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초국가적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세안의 지지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쿠알라룸푸르 KLCC(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오는 2029년 한·아세안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특별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다. 그만큼 아세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다. 이어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다. 한국은 누적 85억달러에 달하는 OD

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이 ‘조력자’와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에 아세안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비공개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개선과 디지털 기

후변화 대응, 인프라 협력,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 지원, 스캠 등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및 해양안보 협력 강화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

‘증시 친화·반도체 호황’ 날개… ‘오천피’ 꿈 아닌 현실로

코스피 4000 시대

① 달라진 K-증시

李 정부, 자본시장 친화정책 시행
AI산업 경쟁 치열… 반도체 수혜
“내년 코스피 5000 달성도 가능”

일각선 디커플링 우려 목소리도
“실질적인 기업 실적개선 동반돼야”

“사천피(코스피 4000)라니! K-팝, K-푸드에 K-증시다!”, “이대로 쭉 5000까지 가자!” 코스피가 글로벌 무역전쟁과 경기 둔화우려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27일 사상 처음 4000선을 뚫자,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증시 낙관론자들의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친화정책 등으로 꿈의 ‘사천피’ (코스피 4000)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코스피 3000시대가 펼쳐진 2021년 ‘행복’보다 이듬해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말도 나온다. 2022년 코스피는 2988.77로 출발했다가 고물가와 경제불안,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를 증시가 얼룩지면서 꾸준히 하락해 연말 2236.40까지 떨어진 바 있다.

올해도 실물경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가만 거꾸로 가는 ‘디커플링(과리)’ 국면이 펼쳐지고 있어서 ‘피크(정점)가 오래갈지 의문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증시 낙관론자들은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며 선긋기를 하고 있다. 다만, 산업 체질 변화와 기업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한 밸류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 증시로 향하는 돈

2022년과 2025년의 가장 큰 차이는 시중에 ‘돈’이 풀릴 환경이 다르다는 점이다. 치솟는 소비자 물가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은 2022년 기준금리를 연 3.25%까지 올렸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며, 2.50%까지 낮췄다. 경제 성장률 하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4000p 돌파 기념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2.57%(101.24포인트) 오른 4042.83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공동취재단

락세가 심상치 않자 돈이 돌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시중금리 지표가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22년 말까지만 해도 3.5%~3.7%대에서 움직였으나 지금은 2.5%대로 내려갔다.

금리가 떨어지면 시중 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었고, 이중 상당액이 증시로 흘러들고 있다. ‘부동산에서 증시로 머니 무브(money move·자금이동)’를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방향도 투자자를 증시로 불러 모은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 지도를 유지하고 있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주식을 사 모으고 있는 것이다. 시중에 풀린 돈도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23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80조168억원으로 불었다. 전례 없는 강제장에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도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4조42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 정부가 주주환원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구조적 리레이팅 의지를 보인점도 외국인들을 불러 모은다. 이 정부는 ‘임기 내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걸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을 개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등 상장사에는 ‘채찍’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주가 올리기엔 나선다는 계획이다.

모건스탠리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슈퍼사이클, 전력·설비 인프라 투자 확대, 방산·K컬처 산업 성장세가 지수 상승의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JP모건도 향후 코스피가 4000을 넘어 5000까지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애버딘 인베스트먼트, 픽테 자산운용, 프랭클린 템플턴 등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거나 투자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업황 전망도 장밋빛이다. 돈 냄새를 잘 맡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세계적 인공지능(AI) 투자 호황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지속되며 HBM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 증권가 ‘오천피’ 전망 엇갈려

NH투자증권은 내년 코스피 5000 달성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유동성 환상이 아니라 산업 양극화가 낳은 구조적 고평가의 정당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도 연말 코스피 목표 밴드를 3600~4050포인트로 상향했다. 대신증권의 연말 코스피 전망 밴드는 3500~

4100, KB증권은 3700~4250을 제시했다.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 역시 내년 코스피 지수 상단을 4200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코스피 앞날이 탄탄대로만은 아니다. 건설업계를 비롯해 미국 관세의 표적이 된 철강, 반도체, 자동차·석유화학 업종 등의 산업에 드리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한국증시가 삼천피 시대를 발판 삼아

‘오천피’(코스피지수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까. 미답의 5000을 바라보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고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주가가 여기서 점프하듯 뚝박질하려면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기업과 나라 경제에 대한 기대가 확실히 달라지는 일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올해 한국의 한국경제 성장률을 0.8~0.9%, 내년은 1.6~1.8% 성장할 것으로 봤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은 “과거 한국 증시가 활인받았던 이유는 이익의 불안정성과 지배구조 리스크 때문이었다”며 “이익의 변동성이 줄고, 거버넌스가 제도적으로 보완되면 프리미엄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2021년과 달리 저평가 구간에서 회복 중이라 고무적이지만, 코스피 5000은 실적 없는 정책 기대감만으로는 어려운 목표”라며 “50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2000으로 무너지지 않는 증시 구조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양적 상승 넘어서는 질적·구조적 혁신 필요”

» 1면 ‘코스피 4000시대…’서 계속

정부의 증시 부양 노력도 컸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낮은 주주환원 수준 제고, 기업(산업)혁신 역량 강화 등을 키우는데 집중해 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코스피 4000선 돌파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외교 노력과 내란 종식 추진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꿔내는 촉매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4000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조적 강세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거시환경의 순풍만으론 기업가치의 지속적 상승(밸류업)을 담보할 수 없어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양적 상승을 넘어서는 질적·구조적 도약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창조적 파괴”가 지속하는 산업 생태계야말로 기업가치의 근간”이라며 “기업들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신성장 동력 발굴, 제조업과 AI의 융합 등 질적 혁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정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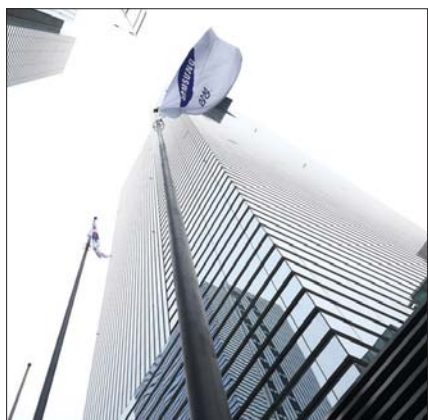
삼성전자 등 K-반도체 집중 매수… “주가 상승세 이어질 것”

외국인·기관 중심 순매수 증가 증권사 목표주가 줄줄이 상향

이재용 회장이 회장 취임 3주년을 맞은 27일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삼성전자 주당 10만원)’가 됐다.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으로 ‘10만원 고지’를 넘은 것은 지난 2018년 액면 분할 이후 최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전일보다 3200원(3.24%) 상승한 10만 2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 매수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월 1일부터 이날일까지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5조1947억원 순매수했다. 기관투자자(금융투자·투신·연기금·사모 등) 역시 9835조원가량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위해 갈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은 기간 6조1333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들은 AI(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을 반영해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1.81% 증가했다. 분기 영업이익

익은 지난해 2분기(10조4400억원) 이후 5분기 만에 10조원대를 회복했다. 매출은 86조원으로 분기 최초로 80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한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사업이 2분기에 바닥을 찍은 뒤, 3분기에 최대 6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관측된다.

주가가치 제고 노력도 주가에 힘을 보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주가가치 제고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주가 방어 및 책임경영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덕분에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소액주주 수는 총 504만 985명으로 늘었다. 이탈리아 가속했던 1년 전(424만 7611명)과 비교하면 소액주주 수는 80만명 증가해 500만 주주 타이틀을 회복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인공지능

능(AI) 산업 발달 및 일반 서버 D램(DRAM) 교체 수요 증가로 반도체 호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찾아왔다는 분석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최근 잇따른 수주 및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경쟁력 회복 소식을 전했다. 지난 7월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23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8월에는 애플 아이폰용 이미지센서로 추정되는 칩 공급 계약도 맺었다. 또 70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오픈AI의 초대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도 참여한다. 재계에선 7월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이 회장이 글로벌 재계·IT 거물들과 만나며 이룬 광폭 행보의 성과로 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최근 엔비디아와 HBM3E(5세대) 공급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HBM4(6세대) 공급을 위한 인종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도 최근 ‘메모리 부활(Resurgenc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각각 11만 1000원,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가 ‘겨울이 곧 닥친다’(지난해 9월), ‘빙산이 온다’(올 4월)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하락세를 경고해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렸던 것과 확연히 다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나섰다. 현재 가장 높은 전망치를 내놓은 KB증권은 ‘13만 전자’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미래에셋증권(11만 1000원→12만 7000원), 한국투자증권(9만 5000원→12만 원), NH투자증권(9만 4000원→11만 5000원), 키움증권(10만 5000원→12만 원), 하나증권(9만 5000원→11만 5000원) 등도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다.

/허정윤 기자

AI·에너지·투자 집결… ‘K-산업’ 글로벌 무대 중심 선다

APEC 주간 맞아 경제인 행사 잇따라
경주서 열리는 CEO 서밋 본격 개막
AI·조선·방산 등 첨단산업 한자리에
삼성·현대차·SK·LG 해외협력 강화
미래 산업 청사진 제시, 비전 공유

이번 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주간을 맞아, 한국이 세계 경제의 무대로 다시 주목받는다. 산업통상부는 27일 APEC 정상회의의 주간에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APEC CEO 서밋(Summit)과 부대행사, 수출/투자 연계행사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APEC CEO 서밋은 28일~31일 까지 3박 4일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주제는 ‘Bridge, Business, Beyond’. APEC 정상과 글로벌 CEO 등 17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 기후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주간 시작 첫날인 27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릴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관계자가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변화, 금융·투자, 디지털 전환, 바이오·헬스 등 20개 세션을 논의한다.

엔비디아, 씨티그룹, 아마존웹서비스(AWS), OECD 등 세계 주요 기업과 국제기구 수장이 대거 참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연설도 예정돼 있다.

경주에서는 CEO 서밋과 연계한 ‘퓨처테크 포럼’(27~28일, 30일, 경주 예술의 전당, 엑스포 공원 등)도 진행된다. 조선, 방산, AI, 리테일, 가상화폐, 미래

에너지 등 6대 첨단산업을 주제로 SK그룹, HD현대, 한화, 두나무,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글로벌 리더들과 협력 전략을 공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퓨처테크 포럼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K-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K-기업의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며 “AI,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산업 리더, 테크 기업, 세계 석학들이 심도있는 인사이트가 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가 참가하는 ‘K-테크 쇼케이스’(28~31일, 엑스포공원)에서는 차세대 폴더블폰, OLED 디스플레이, AI 데이터센터, 수소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이 공개된다.

이밖에도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는 연계 행사가 이어진다. ▲‘수출 붐업 코리아’(10.21~11.7일, 서울·일산·부산·대구

등 전국)는 전국 28개 산업 전시회와 연계해 170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대규모 수출 상담회를 열고,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10.30, 31일, 서울)은 첨단산업·공급망 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한다. ▲‘글로벌 초격차 테크 컨퍼런스’(28~29일, 서울)는 답테크 스타트업의 신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한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8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공동 컨트론타워를 출범시켜 행사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다양한 경제인 행사는 K-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AI전환,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K-산업의 대응 역량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SK이노, ‘LNG 협력’ 글로벌 비전 제시

‘아시아 퍼시픽 LNG 커넥트’ 개최
AI시대 전력수요·저탄소 전략 논의
美 LNG 역할·국제협력 방안 조망

SK이노베이션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오는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아시아 퍼시픽 LNG 커넥트’ 세션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APEC CEO 서밋은 글로벌 기업 CEO와 학계 인사, 정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글로벌 경제 현안과 미래를 논의하는 아태지역 최대 규모의 연례 비즈니스 포럼으로, 오는 28~31일까지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그룹 차원의 글로벌 에너지 협력 의지를 직접 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한 6개국 10개 에너지 기업의 리더들은 케이스케 사다모리 국제에너지기구(IEA) 에너지시장·안보국장의 사회로 아태지역의 에너지 안보, 가격경쟁력, 에너지 공급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 /뉴시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LNG의 역할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세션1에서는 AI 혁신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원전의 경제성을 보완하고 석탄을 대체하며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한 LNG의 역할이 집중 조명된다. LNG가 단순한 브릿지 연료를 넘어 최종 에너지 믹스의 핵심 연료로 재정의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SK이노베이션 및 일본 제라와 호주 바로사 가스전을 공동 개발 중인 산토스의 선 피트 부사장(EVP)이 참석해 고갈 가스전을 활용한 뭄바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허브 구축 사례

를 소개하며 호주의 탄소저감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LNG 지속가능성 모델을 공유한다.

‘US LNG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세션2에서는 미국의 ‘제1차 LNG 물결(1st LNG Wave)’부터 장기계약 파트너로 참여한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가 미 LNG의 가격경쟁력과 계약 유연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LNG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경험을 공유한다. 미국 ‘셰일가스 산업의 개척자’로 알려진 해럴드 햄 콘티넨탈 리소시스 명예회장은 세계 최대 LNG 공급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혁신 기술력, 정책 지원,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미 LNG 산업의 성공요인과 미래 잠재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LNG는 아태지역 경제 성장과 AI 혁신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세션을 통해 아태지역의 에너지 안보, 공급망 안정성, 그리고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국가 간 협력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행사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AI·광물·에너지, 성장의 삼각축”

구윤철, 중남미 인사들과 협력 논의
“청정에너지 전환 함께 이끌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남미 지역 관계자들과 만나 인공지능(AI), 핵심광물 공급망, 에너지 인프라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는 전 세계적인 성장의 둔화와 급속한 기술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에 미주개발은행(IDB) 인공지능 협력사무소를 유치해 명실상부한 AI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다양한 금융협력을 통해 디지털, 핵심광물, 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AI를 비롯해 핵심광물 공급망, 에너지 인프라 등 세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을 제안한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AI 대전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가진 답테크 기술 경쟁력과 중남미의 높은 디지털 친화력이 함께 한다면 글로벌 AI 대전환을 이끌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중남미는 전 세계 핵심광물의 30%를 차지하는 ‘자원의 보고’라며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제조기술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 상호호혜적 협력이 가능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남미는 전제 전기 공급의 60%가 청정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에너지 강국이다. 풍부한 청정에너지 발전여건을 보유한 중남미와 우수한 플랜트, 인프라 건설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IDB 가입 20주년이라는 역사적 이정표 앞에 서 있다. 20년 전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이웃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가 됐다”고 했다.

IDB와의 협력이 국내 기업들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줬다고도 말했다. 인프라·에너지·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중남미·카리브 지역 발전에 공유돼 양측 모두에 성장의 기회를 안겼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년간 IDB를 통해 대한민국이 지원한 사업으로 400만 가구가 넘는 중남미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편리한 교통과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 받으며,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2011년 페루, 2016년 콜롬비아, 그리고 2019년 중미 5개국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했다. 지난 9월에는 에콰도르와 전략적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20년간 한-중남미의 교역 규모는 3배, 투자는 15배 이상으로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중남미, ‘AI 협력 허브’ 설립 추진

구윤철 부총리-IDB총재 면담

한국-중남미 간 미래기술 협력을 위한 ‘AI 협력 허브’ 설립이 추진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IDB 협력 패키지 의향서(LOI)’에 서명했다.

의향서에 따르면 한·중남미 양측은 공동 발전을 위해 한국에 ‘AI 협력 허

브’ 설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AI·핵심광물·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향서에 담겼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서 “AI·디지털 분야에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 AI 협력 허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IDB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우드파잉 총재는 한국의 IDB 가입 20주년을 축하하고, 중남미 지역 발전을 위한 그간의 기여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양측은 한국 인력의 IDB 진출 확

대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는 뜻을 모았다.

고우드파잉 총재는 “IDB에 유능한 한국 인재가 필요하다”며 “이번 채용설명회뿐만 아니라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IDB 한국어 웹사이트 등 한국 인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앞으로도 기구 내에서 한국의 가시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우드파잉 총재는 이날 개막한 ‘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기업의 [사명]

MISSION

使命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볼트 하나로 모두의 삶을 바꾸자”
산업용 볼트 제조 기업 S사

“빛으로 일상을 지킨다”
LED 살균 조명 개발 R사

“자율형 로봇 기술로 인간을 자유롭게”
완전 자율화 로봇 개발 P사

이 땅의 모든 기업이
그 사명을 다 이루도록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 그 옆에

IBK 기업은행

“캄보디아서 범죄자나 송환… 국내 조직 일망타진이 우선”

대검찰청 국정감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국내 조직만 잘 잡아도 피해 줄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범죄자 송환 반대, 이해 안돼”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 송환된 64명이 피해자에 가까운지, 가해자에 가까운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세기를 띄워 이들을 해외에서 송환하기보다 국내 피싱 범죄조직부터 일망타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란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캄보디아 송환자의 행색이 너무 범죄자 같아서 경위를 파악해봤다. 이미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단속돼서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캄보디아 이민국에 갇혀 있는 사람을 정부가 전세기를 띄워서 데려왔다”며 “현지 언론을 보면 단속반이 아파트를 급습해서 한국인 33명을 무더기 체포했다고 나온다. 해당 범죄는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구성



추미에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시스

돼 있고 이번에 송환됐던 64명 중 저기 체포된 33명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범죄자이면서 피해자는 없다. 협박, 강요, 유인을 당했다면 피해자이고, 언제든 범죄를 그만둘 수 있었으면 범죄자”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당국에서 영장청구한 사람은 다 법원에서 발부가 됐다. 그러니까 이들이 캄보디아에서 안 들어오려고 한 것”이라며 “이들 중 납치, 유인, 살해 등 강력범죄가 한 건이

라도 있나”라고 반문했다. 노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 위주”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캄보디아 당국이 보이스피싱 100일 단속 계획을 벌여서 작전을 했다. 외국인 2800명을 적발해서 모두 추방했다”며 “우리나라 사람도 그 때 추방령이 내려졌고 여러 나라 중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전세기를 띄워서 데려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사람이 살해당하는 걸 막는 것이 급선무다. 캄보디아 언론은 전세기를

띄워서 범죄자를 데려가니까 고맙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벌어진 대학생이 납치 및 살해됐다. 캄보디아에서 범인인 중국인 세 명을 잡았다. 국내로 송환할 수 있나”라고 묻자 노란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국제범죄조직은 일망타진하기 어렵다.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법정에) 세워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국내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내 조직만 잘 잡아도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민 명의의 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의 제일 첫 단계에서 청년을 유인해서 통장을 사거나 만들게 해서 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국이 캄보디아 사건 합동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매일 회의만 하지 소용이 없는 것이 제가 구글에 ‘해외 고수익’, ‘통장 판매’ 라고 검색해봤

다. 아직도 광고비를 낸 텔레그램 광고가 뜬다”며 “이거부터 잡는 게 순서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사이트에 가입해서 범죄에 유인되는 청년이 있는 것이다. 이 입구를 틀어막지 않는데 뒷단에서 범죄 다 일어나고 적발하면 되나”라고 질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해외 구직자(모집) 사이트가 구글에 버젓이 있다고 하는데, 네이버에도, 다음에도 있다”며 “플랫폼이 그런 사이트를 없애게 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하고 구글 등 모든 플랫폼이 협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 연류 피의자를 송환해서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서 의원은 “거기 있는 사람들 잡아오지 않아야 하나. 잡아와야 한다”며 “코리아 데스크를 만들어서 잡아와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왜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몸에 문신있는 범죄자들 잡아와야 한다. 그들을 잡아와야 보이스피싱이 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민의힘, 국감에도 지지율 20%대 ‘수렁’

지지율 민주당 43%, 국민의힘 25%
집값상승 ‘10·15 대책’ 與 실책에도
6월 2주차 부터 지지율 반전 없어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개회 후 국정감사를 거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벌이고 있으나, 지지율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한 채 20%대 수렁에 빠져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이 동통신3사가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 순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6월 2주차 조사 이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2주차 조사 이후 30% 후반에서 40%대의 지지도를 유지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 공식 회의와 국정감사 등에서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집값 상승을 겨냥한 10·15 대책을 ‘주거 사다리 건너차기’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서울에서 41%의 지지도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20%에 그쳤다. 경기에서도 민주당은 45%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은 22%에 머물렀다.

정부·여당이 실책을 연거푸 하는데도, 지지율의 눈에 보이는 반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변경하며 ‘국감 회피’ 의혹으로 국감 기간 내내 홍역을 치렀고,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갭투기(전세를 낀 주택 구매) 의혹을 산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이 사퇴했지만 시민들은 국민의힘을 선택하기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까지 맡았으나, 오히려 정부·여당이 역으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장 대표를 공격하면서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

정치권은 선명한 강경 노선을 천명한

장동혁 대표 취임에 뚜렷한 지지율 반전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지지율이 주춤하자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한국인 대상 범죄,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 사건 등 정부·여당의 실책을 발미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지율 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이 불법계엄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이 이를 해소하고 중도층에 소구할 전략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장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와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듯한 행보를 취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복궁’ 사진 등이 퍼지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정당에 덧씌워지고 있다. 당에서 중도에 소구력 있는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은 주류에서 떨어진 상태다. /박태홍 기자

與 “무정쟁주간 제안” vs 野 “관세협상 타결 시한”

‘APEC 주간’ 與野 최고위원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등 외교 슈퍼위크가 열리는 이번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무정쟁주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기업의 생존이 달려있다고 국익에도움이 되는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원회의에서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인만큼, 국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전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며 “전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성공을 위해 무정쟁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이후 20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은 단순한 정상외교장이 아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에이펙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 장담했던 관세협상의 타결 시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넛 캄보디아 총리가 27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韓-캄보디아, 스캠범죄 공동TF 내달 가동

李 대통령-훈 마넛 총리, 정상회담
“스캠범죄 공동대응 위해 적극공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훈 마넛 캄보디아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스캠(사기)’ 범죄와 관련해 한국인 전담반인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내달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훈 총리가 KLCC(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한국인 전담반 내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운영방식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결정하기로 했다. 통상 ‘코리아 데스크’는 한국 경찰이 파견해서 운영하는 방식이지만, 이번에 구성되는 ‘한국인 전담반’의 경우 한국인을 전담하는 기구지만 한국·캄보디아 당국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스캠 범죄 때문에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에 훈 총리는 “최근 한국인 대학생 1명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캄보디아 경찰 당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즉시 조사하고 범인들을 체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 마약 등 초국경 범죄를 퇴치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최근엔 이런 초국경 범죄를 많이 적발했다. 그리고 7월 초에는 초국경 범죄를 잡기 위해 제가 주재하는 범국가적 TF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고, 훈 총리는 “10여 일 전 이 대통령이 파견한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한국인 전담반’ 가동에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주식 투자의 길잡이
AI가 답하다

신한투자증권 **AI PB**

“고객의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신한 **새로고침**AI PB
바로가기

신한 새로고침 프로젝트

고객의 말씀에 귀 기울여 크고 작은 불편을 개선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신한금융그룹의 고객편의성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 <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거래 시 모바일 기준 표준수수료는 0.1882276%~0.1891639% (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5-2057호(2025-09-30 ~ 2026-09-25)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4325호(2025-10-01 ~ 2026-09-30)

신한투자증권

주말 밤, AI가 맞이하하고 사람이 마무리… ‘현장금융’ 새 실험

은행 지점의 재구성

신한은행 디지털 라운지 OCI점

대부분의 거래가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 이뤄지는 시대, 은행 창구는 ‘비효율’로 불린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새로운 점포를 열고 있다. 지점을 재구성하거나 무인, 디지털 중심 채널을 확대하고 있는 것. 과연 은행 점포는 금융의 마지막 현장일까. 아니면 새로운 금융 실험의 출발점일까. 주요 은행들이 추구하는 지점의 재구성 과 변신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

〈편집자주〉

주말 밤에도 문 연 디지털 지점 AI 키오스크가 먼저 고객 맞이 영상통화로 계좌개설·카드발급

지난 2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즐비한 포장마차와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서울 명동의 거리. 그사이 불빛이 새어나오는 은행이 있었다. 주말에도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는 신한은행 디지털 라운



서울 명동에 위치한 신한은행 디지털 라운지 OCI 지점 내부.

/나유리 기자

지 OCI 지점이다.

“은행 문 열었나요?”

직원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건물. 정적 속 뻐뻐히 얼굴을 내밀고 묻는 질문에 경비아저씨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엘리베이터를 가리켰다.

“문이 열려있으니 2층으로 올라가세요.”

점포 앞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디지털 라운지 화상상담’ 이용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365일 코너’ 이용 시간 오전 7시~오후 11시.

앞서 신한은행은 2021년 업계 최초로 디지털 데스크를 도입했다. 당시 오후 8시까지 제공되던 화상상담 서비스를 오후 9시까지 확대해 시간대기 어려운 직장인부터 고령층과 외국인 등 누구나 시간 제약 없이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하시는 업무를 말씀해 주세요.”



3세대 키오스크.

사람은 없지만 움직임을 감지한 키오스크 직원이 말을 걸었다. 화면에는 다양한 메뉴가 보인다. ▲통장정리(새통장 교체) ▲창구신청 체크카드 수령 ▲체크카드 재발급, ▲입출금 계좌 만들기 ▲보안카드 OTP 재발급 ▲ATM(계좌이체), ▲통장사본 거래내역 출력 ▲지로 공과금 납부 ▲서비스 정보 신청 변경 증명서 발급 ▲외국인 고객 업무.

입출금 계좌 만들기를 눌렀다.

만약 이곳에서 만드는 입출금 계좌의 절차가 모바일 앱과 다르지 않다면, 금융소외계층인 고령층과 외국인은 또다시 일반 직원이 운영하는 점포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의문도 잠시, 신분증을 제출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누르니 직원과 영상 통화가 연결됐다.

“고객님, 신규 계좌 만드시는 거 맞으시죠?”

수화기를 들고, 얼굴을 마주하며 항목을 읽었다. 화면에 서명하고, 카드를 선택하니, 통장 사본이 나왔다. 시작은 키오스크였지만 마무리는 일반 직원의 손끝에서 이뤄졌다.

신한은행은 인터넷 모바일앱 거래가 늘며 점포가 사라지는 현상에 대비해 디지털 라운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점포를 세웠다. 금융 비대면화로 금융 소외를 겪고 있는 고령층과 외국인 등이 점포축소에 따른 또 다른 금융 소외를 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험이다. 이곳엔 사람 대신 기술이 서 있었지만, 기술 뒤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은행 규제 강화에도 보험 대출 증가세 주춤

약관대출, 4개월 새 4000억 줄어 잇단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제한적

정부가 ‘6·27’, ‘9·7’, ‘10·15’ 부동산 대책을 연속 투입한 가운데 우려됐던 보험권 ‘풍선효과’는 현재까지 제한적이라 분석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강도 대출 규제에 의해 은행권 대출 접근성이 낮아진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을 담보로 빌리는 구조다. 따라서 별도의 신용 심사가 요구되지 않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적용받지 않아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시 자금 수요의 우회 경로로 활용돼 왔다.

실제로 은행권 DSR 강화 직후 보험

약관대출 신규 취급액은 5월 3조2000억원, 6월 3조4000억원, 7월 3조9000억원으로 가팔랐다.

하지만 생·손보 합산 약관대출 잔액은 규제 시행 전인 4월 말 55조2000억원에서 규제 시행 후인 8월 말 54조8000억원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신규 흐름과 잔액 흐름이 달랐다는 점이 핵심이다.

배경에는 전방위 관리와 건전성 규율이 있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재정부의 부동산 대책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는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응과 IFRS 17(보험 회계기준)에 기반한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 관리 노력이 함께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 추진 과정에서 보험권의 대출을 은행권과 함께 포괄 관리 대상으로 묶어 확산을 차단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약관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실제로 현대해상은 구상품(적립대출)의 약관대출 한도를 기존 보장해약환급금의 95%→60%로, NH농협생명은 종신형 상품을 중심으로 95%→50%로 낮췄다. 규제 회피 수요의 우회로로 지목되던 약관대출이 ‘관리 가능한 범위’로 묶인 셈이다.

문체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시행 초기 우려와 달리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보험업권으로의 풍선효과는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주택시장에 내재된 잠재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재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대우건설 ‘DECOCON’, EPD 인증 획득

한라시멘트와 공동 개발 성과 지속가능성·경쟁력 동시 입증

대우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기후에너지환경정보로부터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에 대해 환경성적표지(EPD) 인증 심의를 최종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대우건설과 한라시멘트가 공동 개발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DECOCON)’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제품의 전 생애주기(LCA) 환경영향을 공식 검증한 첫 사례다. 건설 기술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했다.

EPD 인증은 제품의 원료 채취, 생산, 시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대우건설은 한양대 탄소중립스마트건축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자사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증을 신청했으며,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모두 통과해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대우건설의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는 조강형 슬래그 시멘트를 활용해 온실가스의 주 배출재료인 시멘트를 고로슬래그 미분말로 대체 적용해 기존 콘크리트 대비 최대 54%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저감 효과를 확보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향후 저탄소제품 인증과 탄소감축 방법론, 사업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 인증까지 순차적으로 취득해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4분기 은행 대출태도 가계 건축, 기업은 완화 전망

올해 4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가 가계를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강화될 전망이다. 주택자금 대출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기업 자금 수요는 운전자금·유동성 확보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통해 4분기 은행 가계대출(주택·신용)의 대출태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총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개, 상호저축은행 26개, 신용카드회사 7개, 상호금융조합 142개 및 생명보험회사 10개)이다. 지수는 -100~+100 범위로 산출했고 ‘+’는 대출태도 완화·신용위험 증가·대출수요

증가, ‘-’는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은행의 경우 4분기 대출태도는 대기업 +6, 중소기업 +3으로 완화되지만 가계는 주택 -28, 일반 -19로 강화가 예상된다. 한은은 대출태도 강화 원인으로 6·27 대책 이후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카드론 포함) 관리가 강화된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은행 대출잔액은 6월말 기준 2438조원이다.

4분기 대출수요는 가계 주택이 -31로 감소, 가계 일반은 0, 기업은 대기업 +11, 중소기업 +19로 증가가 전망된다. 운전자금·유동성 수요가 기업 중심으로 살아나는 반면, 가계는 정책효과로 둔화되는 흐름이다.

신용위험은 기업·가계 모두 경계 지속 전망이다. 실제 은행 중소기업 연체율(6월말)은 제조 0.84%, 건설 1.18%, 도·소매 0.95%로 나타났다. 가계 연체율은 신용 0.69%, 주택 0.30% 수준이다. 지수 상으로도 기업(특히 중소기업)과 가계의 위험지표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비은행도 4분기 건축 기조가 이어진다. 업권별 4분기 대출태도는 상호저축은행 -19, 상호금융조합 -27, 신용카드사 -14로 강화되고 생명보험사 +2 완화될 전망이다. 비은행 대출잔액은 6월말 기준 917조원이다. 업권별 연체율은 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높게 나타난다.

/김주형 기자

iM뱅크, APEC 2025 기간 이동점포 지원

성공적 개최 위해 전사적 홍보 진행

iM뱅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사적 홍보 및 자원봉사자 지원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iM뱅크는 오는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최 기간 동안 경주 엑스포 공원 내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며,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배치해 환전 등 금융 업무를 지원한다. 이동점포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또한 전국 지점에서 전사적 홍보도 진행한다. 주요 점포에 현수막 게시 및 전지점 영업용 태블릿과 ATM기기에 APEC 성공개최 기원 문구를 적용해 고객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임직원들도 APEC로고가 새겨진 펜던트의 불로타이를 착용해 행사의 성공을 기원한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경주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임직원의 마음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中 메모리 투자 확산, 공급과잉 우려 국내는 HBM 중심 고부가 전환 가속

AI 수요 버터도 2026년 공급 급증
CXMT 등 IPO로 대규모 증설 나서
中發 설비 본격 가동 팬 수급 불안
삼성·하이닉스, HBM4 개발 속도
기술격차 4년… 고부가 전략 유지

중국 반도체 기업이 자립화를 목표로 IPO 등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중장기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기 수요가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신규 설비가 본격 가동되면 생산이 수요를 앞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국내 기업의 고부가가치 메모리 중심의 주력품 구조 전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 증시 기업 공개(IPO)를 추진 중인 중국 메모리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기업 가치는 약 3000억 위안(약 60조 6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CXMT는 이번 IPO를 통해 300억 위안(약 6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신규 메모리 생산라인 투자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를 비롯한 주요 업체들도 잇따라 자금 유치와 증설 계획을 내놓고 있으며, 중국 정부 역시 지난해 약 3440억위안(약 70조원) 규모의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Big Fund) 3단계’를 설립해 반도체 제조·장비·소재 기업을 집중 지원, 첨단 공정 분야 투자 확대의 기반을 다지는 중이다.

트렌드포스 등 시장조사기관은 이 같은 투자 확산이 ‘시차형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메모리 생산라인은 신규 장비 발주부터 공정 안정화·양산 승인까지 최소 1년 이



최근 CXMT등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유치가 이어지면서, 중장기 공급 과잉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뉴시스

상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확정된 투자가 2026년 이후 폭발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중심의 수요가 D램과 낸드 가격을 지탱하고 있지만, 2026년 이후 중국발 신규 설비가 본격 가동되면 생산이 수요를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8~2019년에도 비슷한 양상의 증설 사이클 이후 D램 가격이 분기 기준 30% 이상 급락하며 업황이 악화된 바 있으며, 2027년 전후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정점에 이른 뒤 하락세에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의 전격적인 투자 확대에도 D램과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핵심 부문에서 국내 기업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CXMT는 내년도 HBM3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SK하이닉스는 이미 세계 최초로 HBM3E를 양산한 바 있으며, 삼성전자와 함께 HBM4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는 양국 간 기술 격차를 약 4년 수

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러한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 고부가 제품 중심의 생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맞춤형 고대역폭메모리(Custom HBM) 비전을 기반으로 HBM4 개발을, SK하이닉스 역시 HBM3E 공급 확대와 차세대 HBM4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두 기업 모두 HBM4를 위시한 고부가가치 메모리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LPDDR5-LPDDR5T 등 차세대 모바일용 저전력 제품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메모리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반도체 생산공정 전문가는 “메모리 산업은 투자와 수요 간 시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의 타이트한 수급이 1~2년 뒤에도 지속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단기 호황에 경도되지 말고 고부가·고효율 제품을 중심으로 한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준 기자 nauta@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로버·로봇용 신소재 협력 강화

도레이와 기술·생산·상용화 공동개발
현대차그룹이 도레이(Toray)그룹과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공동 개발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4일 도레이그룹과 전략적 공동 개발 계약(Strategic Joint Development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4월 도레이그룹과 모빌리티 성능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등 고성능 복합 소재 공동 개발에 대한 포괄적 협력 계약(Master Agreement)을 맺었다.

이후 양사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양사의 역량을 결합한 공동 개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

현대차그룹은 양사의 파트너십을 보다 구체화한 이번 계약을 통해 ▲고성능 차량 ▲달 탐사 전용 로버(Rover),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한 특수목적형 모빌리티 등 미래 모빌리티에 적용하기 위한

첨단 소재 및 부품 개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대차그룹은 도레이그룹과 고성능 복합재 분야에서 기술 개발뿐 아니라 생산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향후 기술 공동 개발 관련 현대차그룹은 R&D본부에서 새로운 차체 재료의 개발과 검증을 담당하는 기초소재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소재와 부품의 차량 단위 설계와 함께 적합성 검증과 성능 평가를 주도한다.

도레이그룹은 도레이 인더스트리(Toray Industries, Inc)에서 공동 개발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개발 및 생산하는 ▲도레이첨단소재 ▲TAC(Toray Advanced Composites) ▲EACC(Euro Advanced Carbon Fiber Composites)가 탄소섬유 기술 기반의 중간재 및 성형 제품을 개발한다. /이승용 기자

포스코홀딩스, 철강 호조에 실적반등 신호

3분기 영업이익 6390억 달성

포스코홀딩스가 철강사업 본업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편 효과에 힘입어 3분기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포스코홀딩스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7조 2610억원, 영업이익 6390억원, 순이익 387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철강사업의 실적 회복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약 320억, 순이익은 3030억 증가하며 3분기 연속 연결 영업이익 개선에 이뤄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철강사업은 지난해 4분기 저점 이후 3분기 연속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개선되는 추세다. 이번 분기는 철강제품 판매가 하락으로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은 소폭 줄었지만, 가동률 회복과 함께 지속적인 원가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포스코(별도 기준)의

경우, 이번 분기 영업이익 5850억원, 영업이익률 6.6%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차전지소재사업은 양극재 판매량 증가 및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 평가손실 환입 등으로 3분기 적자폭이 축소됐다. 특히,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6월 준공한 전구체 공장의 본격 가동에 따른 양극재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다.

인프라사업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하절기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사업 수익 호조와 호주 세넥스 가스전 판매량 증가로 견조한 이익을 유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사고 손실추정액의 실적반영과 안전점검을 위한 공사현장 일시중단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날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저수익·비핵심자산 구조개편 성과도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화, AI·스마트 제조로 방산 네트워크 확장

퓨처테크포럼서 AI·안보 논의
방산 3사, 글로벌 연대 강화
‘평화를 위한 기술’ 비전 제시

AI와 첨단기술을 앞세운 한화 방산 3사가 ‘연대와 기술’을 축으로 한 글로벌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섰다. 한화는 ‘도발이 아닌 보호를 위한 기술’을 내세우면서 AI와 스마트 제조, 우주·에너지 분야 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국제 방산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은 27일 경북 경주의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 for All)’를 주제로 ‘한화 퓨처 테크 포럼: 방산(Hanwha Future Tech Forum: Defense)’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25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의 공식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방산기업 CEO를 비롯해 군 관계자, 안보 전문가 등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AUSA 2025’ 전시회 부스 모습. /한화에어로

27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KAI, LIG넥스원, 대한항공, HJ중공업, 풍산 등 주요 방산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해외에서는 L3해리스, 노스롭그루먼, BAE시스템즈, 사프란, 에어버스, WB그룹, 배브록캐나다, GA-ASI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석해 교류의 장을 이뤘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오늘날 AI와 첨단 제조 기술이 융합되는 대전환의 시대 속

에서 평화를 지혜롭고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한화의 기술은 도발이 아닌 보호를 위한 기술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평화를 위한 기술(Technology for Peace)’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스마트 제조, 우주, 에너지 등 미래 프런티어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글로벌 안보 협력의 신뢰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혁신 방향을 주제로 다양한 연설과 토론이 진행됐다. 크리스토퍼 파인전 호주 국방장관은 ‘전략적 경쟁시대 호주 방위산업 정책 전망’을 주제로 기술혁신과 국방 산업 간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현 전북대 교수)은 ‘K-방산의 미래: 기술 중심 산업 전환과 글로벌화’를 발표하며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 중심 경쟁력 확보 전략을 제시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삼성중공업, 한국형 화물창 KC-2C 첫 탑재

대한해운 LNG선에 상업용 적용

삼성중공업은 대한해운엘엔지와 협업해 한국형 화물창 KC-2C를 상업용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에 최초 탑재했다고 27일 밝혔다.

LNG 운반선(7500㎥급)은 이달 인도돼 경남 통영에서 제주 애월 LNG 기지까지 LNG 수송 첫 항차를 순조롭게 마쳤다.

삼성중공업과 대한해운엘엔지는 지난해 8월 LNG 운반선의 기존 화물창을 KC-2C로 개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거제조선소에서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가스 시운전을 완료하고 인도까지 하게 됐다.

KC-2C는 외국에 의존해 온 LNG 화물창의 기술 자립을 위해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한국형 화물창이다. 기존 화물창과 비교해 2차 방벽 설계 및 시공 방법을 개선해 기밀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우수한 단열 성능 역시 갖췄다.

삼성중공업은 KC-2C 개발을 위해 지난 2020년 mock-up 테스트를 마쳤다. 지난 2021년 구축된 LNG 실증설비에서 화물창 핵심 기술의 내재화에 주력해왔다. 지난 2023년 10월에는 삼성중공업이 자체 투자해 활용하고 있는 다목적 LNG 병커링 바지선 ‘그린누리호’에 KC-2C를 탑재해 거제조선소에서 LNG 해상 병커링, 냉각 시험, 가스 시운전 등 실증을 병행했다. /이승용 기자

양극재 3社, 3분기 실적 반등... ‘공장증설·LFP 양산’ 탄력

〈리튬인산철〉

포스코퓨처엠 영업익 4775% 폭증
에코프로비엠 헝가리 공장 시운전
엘앤에프 LFP 양산 돌입 계획

국내 양극재 업계가 3분기를 기점으로 부진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수요 확대에 맞춰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원가 효율화를 추진하며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응한 사업 경쟁력 강화 움직임이 구조적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이날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6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75% 급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에너지 소재 부문에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증가했다. 전남



포스코퓨처엠 양극재가 제조되는 생산 라인 모습

광양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체를 기반으로 한 미국향과 유럽향 양극재 판매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전 분기 대비 매출 증가 폭이 커졌다.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광양에 연 4만 5000톤(t)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준공해 양산에 돌입했으며 하반기부터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고정비 개선 효과와 재고평

가충당금 환입 등이 반영되며 수익성이 확대됐다.

에코프로비엠은 3분기 약 44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전기차(EV)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성장에 따라 양극재 출하량이 확대되고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투자 이익까지 반영

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엘앤에프 역시 78억원 수준의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테슬라향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가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 원재료 조달비 절감 등의 영향으로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과 생산거점 확대를 통해 수익 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최근 글로벌 완성차사와 4년간 6710억원 규모의 천연흑연 음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양·음극재 사업을 모두 강화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헝가리 데브레첸 양극재 공장 준공을 앞두고 시운전을 진행 중이며 내년 1분기부터 3개 라인 중 1개 라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상업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I GIP(인터내셔널 그린산업단지)에서 국

영기업 PT 발레 인도네시아 등과 합작법인(JV)을 설립하는 2단계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엘앤에프는 기존 강점인 하이니켈 양극재 수익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사업에 진출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양극재 업체들의 전략 강화 흐름이 본격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여전히 체감경기가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ESS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에코프로가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엘앤에프도 곧 LFP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포스코퓨처엠 역시 지속적으로 신규 계약을 체결하며 외형을 키우고 있어 EV 및 ESS 시장 확대에 따라 실적 개선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러 원유 제재 확산... K-정유사, 반사이익 전망

세계 주요국 러시아산 원유 거래 중단
국제유가 상승세... 마진 개선 기대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강화한 데 이어 중국 국영 석유기업들까지 러시아산 해상 원유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세계 주요 수입국들이 잇따라 러시아산 원유에서 발을 빼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한국 정유업체는 중동산 원유 조달 안정성과 정제 효율을 앞세워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23일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루코일(Lukoil)과 로스네프트(Rosneft) 및 정유자회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EU도 같은 날 제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확정해 오는 2027년부터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두 국영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해상 원유 수출 루트가 크게 위축됐다.

제재가 확산되자 눈치를 보던 중국 국영 석유기업들(시노펙·페트로차이나·C

NOOC 등) 역시 러시아산 해상 원유 구매를 일시 중단했다. 미국과의 외교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세계 원유 시장의 공급 차질이 현실화됐다. 인도 역시 러시아산 해상 원유 수입을 중단하면서 이를 대체할 중동산 원유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유가는 즉각 반응했다.

러시아산 원유는 인도가 약 40%, 중국이 9%를 차지해왔다. 공급선이 좁아지자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61.5달러, 두바이유는 68.8달러로 한 주 새 7~12% 급등했다. 미국 정부의 전략 비축유(STR) 매입 계획까지 겹치며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한국에는 역설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산 원유 비중이 낮고, 중동·미주 중심의 안정된 조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체 도입량의 약 70%가 장기계약 형태의 중동산 원유로 구성되어 있어 공급 차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고도화 설비 비중이 높아 같은 유가 상승 상황에서도 제품 마진 방어력이 중국·인도보다 월등하다.

실제 S-Oil의 정제마진은 올해 평균 배럴당 12~13달러 수준으로 글로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역시 복합정제시설을 중심으로 90%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의 움직임도 한국 정유사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석유 수출국 협의체(OPEC+)는 11월 원유 증산 폭을 당초 시장 예상보다 줄여든 하루 13만 7000 배럴로 결정했다. 이는 아시아로 향하는 중동 원유의 공식판매가격(OSP)을 낮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가 상승 국면에서도 조달 단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한국 정유사들은 수익성을 방어해 마진 개선에 노릴 수 있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저가 원유의 존도가 높아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려면 정제비용이 급증하지만, 한국은 이미 고효율 설비와 안정된 원유 공급망을 갖춰 대응이 유리하다”며 “러시아산 저가 원유 시대가 저물면서 고효율 정제시설을 갖춘 한국·일본·싱가포르 정유사 중심의 ‘품질·효율 경쟁 구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퇴근 후 여유롭게 차량 정비 받으세요”

SK스피드메이트 매주 화요일 별빛정비

급격한 날씨 변화가 찾아온 가운데 스피드메이트가 퇴근 시간 이후에도 차량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장인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생활을 돕는다.

SK스피드메이트의 자동차 종합 관리 브랜드 스피드메이트는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까지 정비를 지원하는 ‘별빛정비’를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별빛정비는 지난해 수도권에서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서비스 범위를 넓혀왔다. 올 가을 겨울 시즌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별빛정비는 전국 100개 이상의 매장에서 펼쳐진다. 평일 주간엔 시간을 내기 어렵고 주말에는 정비 예약 경쟁이 치열해 차량 정비가 쉽지 않았던 직장인들에게 동계 차량 고장을 예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별빛정비는 별도의 추가 공임없이 주간과 동일한 서비스로 제공되며, 스피드메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고객 대상으로 사전결제 후 방문 시 커피쿠폰을 증정하며, 개인 SNS에 별빛정비 후기를



스피드메이트가 일과 시간 이후까지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빛정비를 올해 연말까지 시행한다. /SK스피드메이트

게시하면 스피드메이트 정비 5만 원 할인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스피드메이트는 별빛정비와 같은 고객 편의를 증진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국내 대표 차량 관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SK스피드메이트 관계자는 “차량 고장과 사고가 잦은 동계시즌을 대비해 바쁜 직장인들도 일과 시간 이후 차량 정비가 가능하도록 별빛정비 서비스 매장을 확대했다”며 “전국 580여 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정비 경험을 제공해 고객의 행복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엔솔, 배터리 평가 서비스 ‘비원스’ 출시

5분만에 차량 배터리 상태 파악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 평가 서비스 ‘비원스(B.once)’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원스는 약 5분 만에 단 한 번의 진단으로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의 잔존 용량, 전압, 온도 등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만 건 이상의 배터리 관리 및 진단 특허를 기반으로 구축한 독보적인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설계 역량과 장기간의 배터리 공급을 통해 검증된 기술력이 반영돼 신뢰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비원스를 통해 중고차 거래 및 자동차 경매 플랫폼 등에서 배터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면서 거래 투명성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BaaS사업 김현준 담당은 “비원스는 보험·금융 등 신규 상품과 연계해 전기차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전기차 생태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독보적인 배터리 기



전기차 배터리 평가 서비스 ‘비원스(B.once)’ 소개 이미지. /LG에너지솔루션

술을 기반으로 배터리 생애주기 서비스 분야의 고객가치를 고도화하고 해외 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31일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

소상공인 최대 행사인 ‘2025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오는 31일과 내달 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2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공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늘을 여는 소상공인, 내일을 잇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2000여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개막식에서는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희망의 빛 파포먼트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국육외광고협회중앙회, 대한제과

협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한국화원협회, 한국조리기능장협회 등이 주관하는 각 단체별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에는 약 1500명이 나서 기술과 창의가 겨루어질 예정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유망 상권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글로벌 상권관, 숙련자의 손끝기술을 로봇으로 구현하는 소공인 특별관, K-뷰티 소상공인의 우수성을 선보이는 소공인 K-뷰티관,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에 앞장선 기업들이 육성한 소상공인 등을 소개하는 상생협력관 등이 설치된다. /김승호 기자 bada@

보안사업 육성 vs 취약점 노출 정보보호 공시 규제 ‘갑론을박’

‘정보보호 종합대책’ 기업 반응

공시의무 대상 666곳→2700곳
공시결과 토대 역량 ‘등급화’ 공개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태로 ‘디지털 리스크’가 기업 가치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자, 정부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현행 제도 조차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속에서 “보안 사업이 크게 육성될 기회”라는 반응과 “보안 취약점을 노출하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 함께 나오고 있다.

27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지난 22일 정부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IT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 상반되게 나뉘고 있다.

현재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 의무대상 기업 666곳 중 23.7%인 158곳의 정보보호 인력이 ‘0명’이었다. 26곳은 정보보호책임자(CISO)조차 지정하지 않았다. 일부 기업은 CISO의 높은 연봉 대신 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택하는 ‘도덕적 해이’까지 보인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공시 의무 대상을 현행 666

개사에서 약 2700여 개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고,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을 등급화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CEO의 보안 책임 원칙 명문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 수위도 대폭 높였다.

여기에서업계의갑론을박이이어지는 부분은 정보보호 공시제도다. 해당 제도는 기업의 보안 현황이 재무 상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주주들에게 알리는 제도다. 공시 대상 기업들은 정보보호 분야 투자액과 인력 현황,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관련 인증 및 점검 사항, 그 외 정보보호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공시의무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에만 적용돼 있다. 회선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이면서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동시에 정보통신 서비스 일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이 넘는 기업 등이다.

국내 보안 업계는 이번 대책이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무 대상이 상장사 전체로 확대되면 당장 보안 인력 채용과 솔루션 도입, 컨설팅 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간주하며 미뤄왔던 기업들도 공시와 등급화라는 압박 속에

서 지갑을 열게 될 것이란 기대다.

한 보안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라며 “국내 보안 산업 전반의 규모가 커지고 관련 기술 투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공시 의무가 곧 상대적으로 보안 등급이 낮은 기업들을 향한 해커들의 집중포화를 부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요구하는 ‘세부 공시 항목’이 취약점을 드러내는 창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단순 투자총액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세부 사항 항목을 공개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취약점이 노출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앞서 의무화 한 ESG 공시 의무제도와 연결 짓는 업계의 목소리도 있다. 2023년 ESG 공시 법제화가 예고된 후 의무 대상 기업들의 ESG 활동이 활발해졌던 전례를 볼 때 정보보호 공시제도 의무화 이후 관련 움직임은 필연적일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ESG 공시를 위한 ‘보여주기식’ 활동이 늘면서, 실제 환경 보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친환경’으로 포장되는 ‘그린워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런 전례를 감안할 때, 정보보호 공시 제도 역시 형식적인 실적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유플러스가 복잡한 디지털 생활 속에서 고객에게 ‘심플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 통합 앱 ‘U+one’을 선보였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임직원이 U+one을 소개하는 모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고객센터·멤버십 앱 통합

대화형 AI기능 탑재 ‘U+one’ 선포

LG유플러스가 고객 통합 앱 ‘U+one(유플러스원)’을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이 앱은 기존 고객센터와 멤버십 앱으로 나뉘어 있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화형 AI 기능을 탑재해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U+one 출시는 LG유플러스의 새로운 브랜드 철학 ‘Simply. U+’의 일환이다.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고객이 쉽고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앱에서는 통신 상품 가입, 요금 확인, 멤버십 혜택 등 고객 여정 전반의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8개로 나뉘어 있던 메뉴를 ‘MY’, ‘스토어’, ‘혜택’ 3개로 단순화했으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러스’ 탭과 AI 검색 탭을 추가했다.

AI 검색 기능은 대규모언어모델(LL

M)을 기반으로, 고객이 질문하면 대화하듯 원하는 정보를 안내하고 관련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멤버십 기능 역시 출석체크, 영화 예매, 쿠폰 추천 등 인기 혜택을 메인 화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구성했다.

U+one은 베타 테스트 단계부터 고객 피드백을 반영해 사용성을 개선했다. 이용자들은 요금·이용내역 확인과 혜택 탐색이 쉬워졌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앱 출시를 시작으로 ‘Simply. U+’ 철학을 전사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U+one을 통신을 넘어 일상·커머스·콘텐츠·구독 등으로 확장해 슈퍼앱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출시 기념으로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 ‘U+one과 함께 이루는 2025 버킷리스트’, ‘모두의 쿠폰’, ‘Simple.lab’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KT 후원 선수들, 전국체전 메달 38개 쾌거

역도의 박혜정, 근대5종 신수민 등
아마추어 종목 국가대표 선수 후원
‘스포츠 꿈나무 프로그램’ 3년째 운영

SK텔레콤은 자사가 후원하는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들이 지난 23일 막을 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7개, 은메달 7개, 동메달 4개를 따냈다고 27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22년부터 역도의 박혜정, 근대5종 신수민, 높이뛰기 최진우 선수 등 아마추어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을 후원해왔다. 또 육상·수영·근대5종·스포츠클라이밍 등 다양한 종목의 중·고교 선수를 지원하는 ‘SKT 스포츠 꿈나무’ 프로그램을 올해로 3년째 운영 중이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박혜정, 신수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역도 박혜정 선수가 바벨을 들어올리는 모습. /SKT

을 비롯해 수영 노민규·김준우, 육상 나마디 조엘진, 역도 박산해, 스쿼시 나주영 등 ‘스포츠 꿈나무’ 선수들이 두 개 이상의 메달을 따내며 활약했다.

박혜정은 여자 일반부 87kg 이상급 경기에서 인상 123kg, 용상 155kg, 합계 278kg으로 3관왕을 달성했다. 신수민은

근대5종 여자 일반부 단체전과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2관왕에 올랐다.

육상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은 남자 일반부 100m·200m·400m 계주에서 모두 우승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 수영 노민규(경기고)는 5관왕, 김준우(광성고)는 4관왕에 올랐다.

역도 박산해(운양고)는 금메달 2개, 이다연(경남체고)은 금 1·은 2개를, 창던지기 이새봄(강원체고)은 동메달 1개를 따냈다. 스쿼시 나주영, 펜싱 조주현, 사이클 박예빈, 태권도 권은주·남궁서연, 복싱 박태산 등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포츠 꿈나무’ 프로그램은 중·고교 유망주를 발굴해 초기 성장단계부터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30여 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김서현 기자

국민의힘, 최민희 사퇴촉구·고발 예고

과방위원장 자녀 축의금 논란
국민의힘 송언석 “김영란법 위반 소지
뇌물 돌려주더라도 ‘뇌물죄’ 성립”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사진)이 전날(26일) 본회의장에서 자녀의 축의금 목록을 확인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이 보도된 이후,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국감 종료 후 고발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 “요즘 시중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보다도 최 위원장이 뜨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최 위원장에게 말한다. 자녀의 결혼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는데 사진을 보니 축의금을 누가 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100만원씩 받은 것은 적은 돈이 아니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며 “이것도 돌려준다고 이야기했는데,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돌려준다는 것인지,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 성립이 중론이다. 사적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은 갑질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사퇴하라. 그다음에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희 의원실은 공지를 통해 “모 언론에서 보도한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는 최 위원장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며 “최 위원장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는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리스트 중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취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민희 위원장의 문제는 피감기관을 갈취하는 것”이라며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본인이 돈을 받았으면서 주기도 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김영란법 위반과 함께 묶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마음AI, 대화형 AI 에이전트 등 선보여

AI·사이버보안 콘퍼런스 운영사 참여
마음AI가 12월 3일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제주 AI·사이버보안 콘퍼런스’의 운영사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도의회, 공공기관,

민간기업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AI 대중화에 따른 사이버안보 동향’, ‘AI 트렌드와 글로벌 사례’ 등을 주제로 인공지능·사이버보안 관련 강연이 열리고, 산업·교육·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 논의된다.

마음AI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피지컬 AI 체험존’을 운영한다. 체험존에서는 대화형 AI 에이전트(SUDA 기반), 자율주행 로봇(WoRV 기반), AI 음성제어 및 안내 로봇, AI 방송·촬영 로봇 등 산업형 피지컬 AI 기술이 공개된다. 참가자들은 AI의 실시간 인식·판단·이동·상호작용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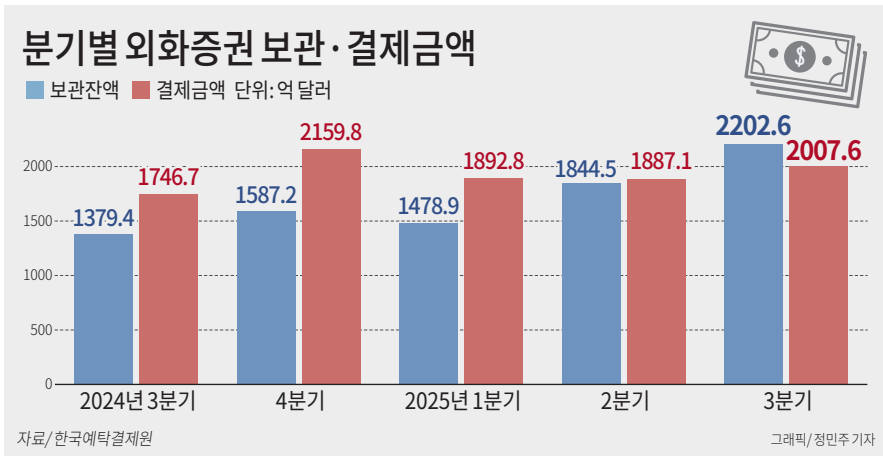
/김서현 기자

심화되는 개미의 양극화… ‘빚투의 코스피’ vs ‘신뢰의 미장’

국내자금 해외시장 급속 이동
외화보관액 2200억달러 돌파
국내신용융자 잔액 24조대
은행예금 한달새 20조 감소

“코스피는 (투자) 하지 않아요.” 20대 후반의 사회 초년생 김광중(가명)씨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확실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코인) 투자에 관해 묻자 한국 증시에는 투자한 적도, 투자할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한차례 차익을 남긴 티라 코스피나 코스닥에서는 수익이 더는 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30대 초반의 직장인 이태연씨도 마찬가지다. 이씨는 “삼성전자나 한화에너지에 투자했다가 3분의 2가량을 처분했다. 코스피 주식은 변동성이 커 불안하다”며 “대신 미국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 등 국내 주식에 1억3000만원을 투자하던 자영업자 이태연(39)씨는 이달 초 3분의 2 정도를 팔았다. 코스피가 3700선까지 오르자 ‘매수 타이밍’이라고 판단해서다.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국장(국내 증시)과 해외 증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빚을 갚은 미장(미국 증시)밖에 없다’는 서학개미(해외 주식투자자)들의 투자액이 2200억 달러를 넘었다. 사상 최대다. 반면 동학개미들은 빚투(빚을 낸 주식투자)에 나서며 달리는 말(코스피)에 올라타고 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하려면 “자본시장이 충분한 수준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빚을 갚은 ‘미장’이라는 서학개미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220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분기(1844억5000만달러) 대비 19.4% 증가하며 분기 기준 처음으로 2200억달러를 넘어섰다. 결제금액은 같은 기간 2007억6000만달러로 6.4% 늘었다.

종류별로 외화주식은 1660억1000만달러로 22% 증가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외화채권은 542억5000만달러로 12%

늘었다. 특히 외화주식 보관금액은 1년 전(1020억달러)보다 약 63% 급증했다.

시장별로는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80.7%를 차지했으며, 유로시장·일본·홍콩·중국 등 상위 5개 시장이 98.8%를 점유했다. 외화주식만 놓고 보면 미국 주식 비중이 93.7%에 달했다. 보관금액 상위 종목은 모두 미국 기업으로, 테슬라(274억9300만달러), 엔비디아(163억달러), 팔란티어A(64억5700만달러), 애플(46억6600만달러), IONQ(37억3100만달러) 순이었다. 상위 10개 종목의 보관금액이 전체 외화주식의 45.6%를 차지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AI와 반도체 중심의 글로벌 투자 열기가 국내 투자자의 해외 매수세를 이끌었다”며 “국내 증시 강세와 병행해 글로벌 기술주 투자도 확대되는 이중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올라타자’ 빚투 24조 넘어서
동학개미들은 빚투에 나서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3일 기준 국내 증시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4조4220억 원으로 전월 말(23조4928억 원)

보다 9292억 원 늘었다. 신용융자 잔액은 이달 20일 2021년 8월 9일 이후 약 4년 만에 24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해당 잔액이 많을수록 개인들이 주식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

개인들의 투자 열풍은 은행권의 잔액 추이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23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49조5330억 원으로 전월 말(669조7238억 원)보다 20조1908억 원 줄었다. 요구불예금은 뚜렷한 용도나 투자처가 없는 대기 자금을 통칭한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주주환원 확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면서 “자본시장의 제도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꾸준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이찬진 “상호금융 감독권 일원화 동의”… 정치 논란엔 선 그어

금융감독원 2025 국정감사

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대 의지
강제조사권 도입 필요성 강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상호금융 감독체계 일원화와 금융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확대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했다. 전임 원장 시절 ‘정치적 보고서’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원 특사경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가조작 사건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원만큼 효능감 있는 기관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인지수사권 등 제도 정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명시돼 있음에도 하위 규칙으로

검찰 지휘에 종속된 현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며 “국립공원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도 인지수사권을 갖고 있다. 금융원 특사경만 예외일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수사가 개시돼도 금융원 조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검찰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건이 공개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원의 강제조사권 부재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신고포상제 접수 사건이 단순 종결되는 이유는 현장에서 강제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금융위·거래소·금융원이 합동대응단을 꾸려 강제조사권을 함께 활용한 사례처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금융상황분석팀’이 정치 컨설턴트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자 “저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원장 시절 해당 팀이 ‘패션도 정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정치인 복장 사례를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그런 보고를 받는다면 분석팀을 해체하겠다”며 “현재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전임 원장 시절 문제점이 있었다면 확인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시 인적 제재까지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검찰 가능성을 언급하자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치 행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의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금감원의 본연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감독 주체가 분산돼 금감원의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자 “동의한다”며 “금감원의 입장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고, 행정안전부도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도 쟁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는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며 “상호금융 중앙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감독체계를 금감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상호금융은 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부처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나눠 관리하고 있어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허정윤 기자

하나증권, 통합계좌로 외국인 매매 첫 거래 성사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외국인투자 절차 대폭 간소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가 활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매수세가 거세지고 있다. 외국인이 반도체 등 대형 수출주를 중심으로 ‘사자’에 나서며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하나증권이 외국인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투자 인프라를 완성했다.

하나증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고 최근 첫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자국 증권을 통해 국내 주식을 직접 매매한 사

례로 기록됐다.

그동안 비거주 외국인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 증권사 계좌 개설, 외환 등록, 예탁결제원 코드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하나증권의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로 외국인 투자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현지 증권을 통해 직접 주문·결제할 수 있게 됐다. 하나증권은 지난 8월 홍콩 엠퍼러증권과 협약을 맺고, 이를 통한 첫 거래까지 마쳤다.

이 서비스로 해외 투자자의 한국 주식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만 5조원을 순매수하는 등 ‘귀환’ 움직임이 뚜렷해진 상황에서 의미가 크다.

외국인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기대와 정책 신뢰도 회복에 따라 국내 시

장을 재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등 친시장 정책을 내놓은 점도 자금 유입을 자극했다.

하나증권은 외국인통합계좌 외에도 투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글로벌 투자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하나은행과 협업해 ‘하나 해외주식투자 전용 통장’을 출시해 외화 이체 없이 달러로 해외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했다. 9월에는 하나은행·하나카드와 함께 ‘트레블로그 외화통장’을 선보이며 여행 외화 자금과 투자 계좌를 연계한 서비스를 확장했다.

또 통합증거금 서비스를 원화·달러·엔·유로·위안 등 5개 통화로 확대해 서학개미의 거래 효율성을 높였다. /허정윤 기자

NH투자증권, 퇴직연금 1년 수익률 20% 달성

장기수익률도 안정세 유지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운용 성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27일 NH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 기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1년 수익률이 20.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익률도 17.5%로 집계됐다. 두 수익률 모두 증권사 평균(DC 17.2%)을 웃돌며, DC형 적립금 1조원 이상 사업자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3년, 5년, 7년, 10년 등 모든 장기 구간에서도 증권사 평균을 상회했다. 시장 변동성에도 안정적인 성과를 낸 것은 적극적인 글로벌 자산배분과 ETF 활용 덕분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860여개의 ETF와 국채·회사채·지방채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타사 퇴직연금 상품도 매도 없이 실패 이전이 가능해 계좌 이동의 편의성도 높였다.

또한 투자 성향, 은퇴 시점, 기대수익률 등을 분석해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퇴직연금 PICK’ 서비스와 AI 신기술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가 결합돼, 고객별 최적의 운용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4월 출시된 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단기간 내 업계 최고 수준의 운용 성과를 보였다.

이재경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총괄부문 부사장은 “고객의 노후자산을 책임지는 금융 파트너로서 꾸준한 수익률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노동절’ 명칭복원·공휴일 추진 퇴직금 체불 ‘반의사불벌’ 배제

노동법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자의 날’ 명칭 역사 속으로
내년부터 5월1일 ‘노동절’ 사용
장애인고용 규제 완화 포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내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고, 공휴일 지정이 추진된다.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우선 내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절 명칭은 1923년부터 사용됐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사용돼 왔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노동절을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땅의 가치를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휴일 관련 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 법률에는 체불 근절과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도 다수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내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포함됐다.

먼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의적·상습 체불에 대한 실질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국가가 대지급한 임금(대지급금)에 대해 국세채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체불

사업주로부터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사업주의 직상 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까지 회수대상으로 포함돼, 도급 구조에서의 연쇄 체불 방지도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날 함께 통과된 8개 법률에는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고용보험법 개정 등도 포함됐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해 청년 발달장애인 중심의 표준사업장 설립을 촉진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도 월 단위에서 일 단위 부과 방식으로 바뀌어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노사발전재단 ‘택배 노동환경 개선’ 앞장

한노총,·택배서비스협회와 손잡고
권리증진·상생·사회공헌 등 협력

노사발전재단과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노사발전재단은 27일 서울 중구 재단 본부에서 한국노총 전국 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사)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택배 산업 상생협력 협약식’을 열고,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과 노사 협력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택배 노동자 권리 증진 사업 발굴 및 추진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 강화 등 3대 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택배 산업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서비스 산업’으로 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첫 번째 실천 과제로 ‘택배 노동자와 안전을 잇다’를 주제로 한 ‘2025 안전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을철 화재 예방을 위한 노사 공동 캠페인을 물류센터·터미널 등 현장에서 실시하고, 택배 기사들을 대상으로 화재 및 차량사고 예방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택배 산업 노사가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소통의 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재단은 택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사성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위원장은 “현장에는 여전히 많은 노동 현안이 남아 있지만, 노사가 마음을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전력거래소, 세계 계통운영자 회의 개최

美·中 등 13개국 18개 기관 참석

전력거래소는 27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25년 세계 계통운영자 회의(GO15)’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O15는 2004년 출범한 세계 주요 전력계통 운영기관 협의체로, 미국의 PJM·CAISO·MISO, 프랑스 RTE, 이탈리아 Terna, 중국 SGCC·CSG, 인도 Grid-India, 일본 TEPCO, 브라질 ON S, 러시아 SO-UPS, 한국 KPX 등 14개 기관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협의체 회장사인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며 13개국 18개 기관이 참

석했다. 회의 주요 의제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계통 불안정성 대응, 출력 제어 등 재생에너지 운영전략, 그리고 AI·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부하의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이다. 특히 총회에서는 그리스 IPTO와 스위스 SwissGrid의 신규 계통운영기관 가입안이 표결을 거쳐 승인돼 글로벌 계통운영 노하우 공유와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2005년부터 GO15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이번 서울회의를 계기로 국제 전력계통 운영 분야에서의 리더십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세종=한용수기자

경쟁사 핵심부품 공급 막은 이오시스템 ‘시정명령’

공정위 “방위산업 경쟁 질서 훼손”
공정경쟁 위해 불공정 지속 감시

방위산업 분야에서 경쟁사의 핵심부품 공급을 가로막은 이오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7일 이오시스템이 방위산업 경쟁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 시정명령(행위중지 및 향후행위금지,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오시스템은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추진한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핵심부품인 ‘계수기 조립체’를 독점 생산하는 신보에 경쟁업체인 우경광학에 대한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계수기 조립체는 포신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장치로, 방향포경의 방위각을 측정·표시하는 부품이다.

이오시스템은 2011년 신보와 공동으로 이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한 뒤, 2013년 계약을 통해 “신보가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거나 외주 생산할 경우 이오시스템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부품 공급거절 행위가 계약 조항에 따른 것이더라도, 시장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만큼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오시스템은 공

정위 제재 사실을 신보와 관련 수요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방위산업은 과거 특정 업체가 방산물자 생산을 전담하던 체제였으나, 2008년 제도 폐지 이후 복수 업체 지정이 가능해져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행위가 제도 개선 취지에 반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도 개선의 취지에 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제한경쟁이 이뤄지는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한우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한우 먹는 날’ 1800여 매장 소고기 할인

농식품부, 내달 10일까지 세일지원
온·오프라인 30~50% 할인 판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먹는 날’(11월1일)을 맞아 ‘소(牛)프라이즈 2025 대한민국 한우세일’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은 10월28일부터 11월10일까지다. 전국 대형마트를 비롯해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630개소), 주요 온라인몰에서 한우를 30~50% 할인하는 행사다. 14일간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1884개소의 참여가 예정돼 있다.

이번 행사는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하고,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10월29일~11월9일)을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할인대상 품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등심과 양지, 설도 등 불고기·국거

리류이다.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업체별 행사 일정 및 품목은 재고 사정에 따라 다르다. 세부 내용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당 7950원, 양지는 4040원이다. 이 밖에 불고기·국거리류는 2980원 수준이며, 이는 같은 기간(11월 상순) 평년치 소비자가격과 비교해 20~30% 저렴하다.

이달 31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농식품부, 생산자·소비자 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한우 국밥 나눔 행사’가 열린다. 또 전국 곳곳에서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각종 기념행사와 현장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조류 AI 선제대응… 예찰지점·기간 확대

기후부, 총조사 지점·횡수도 확대
울거울부터 과학적 예측기법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상시에 잘 지점 및 기간을 늘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선제 대응은 지난 10월15일 일본의 홋카이도의 야생조류 참매에서 고병원성 AI가 이번 동절기 최초로 검출됨에

따라 국내에도 발생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새의 유입과 북상 시기가 늦어지고, 올해는 여름철에도 가끔류에서 조류AI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기후부는 상시예찰 지점을 92곳에서 102곳으로 늘리고, 예찰기간도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통상 3월)까지 1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철새 총조사(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지점을 15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총조사 횡수도 당초 연간 8회에서 10회로 내년 2~3월에 2회를 추가한다.

특히 울거울부터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을 예측하는 과학적 예측기법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한 방역을 위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경남도 '2025 투자 설명회' 개최

기업당 300억 이상 지원 가능... 투자유치 10조 시대 연다

우주항공 등 경남산업 경쟁력 소개
전국 최고수준 인센티브 제도 갖춰
“대한민국 산업·경제 중심지 도약”

경남도가 연간 투자 유치 1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도는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 경상남도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의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수도권 소재 잠재 투자 기업 최고 경영자(CEO), 국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는 '왜 지금, 경남에 투자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경남의 산업 경쟁력과 미래 비전, 투자 인센티브, 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며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경남형 투자생태계를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은 경남 투자 환경 및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 (원형사진) 박완수 도지사

지원제도 설명, 경남 산업 육성 정책 소개, 우수 투자 기업 표창 수여, 맞춤형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된 전국 최고 수준의 과격적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규모 투자 시 지방비를 포함해 총 300억원 이상 지원도 가능하다.

경남은 5만여 개 제조업체가 밀집한 대한민국 제조 산업의 심장으로, 한강

이남에서 유일하게 전 산업 기반을 안비한 지역이다.

우주항공, 방위, 원자력,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전국 1위를 비롯해 기계 산업 전국 2위, 자동차 부품 산업 전국 5위를 기록하며 산업 전반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도내에는 210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해 지역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22개 대학에서 매년 1만 9000여 명의 인재가 배출되고, 이 중 3000여 명이 기술전문 인력으로 산업 현장에 진출한다.

박완수 도지사 취임 이후 경남도는 투자 유치를 도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전담기관인 경남투자청을 신설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92개사, 8조 3806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했으며 28일 투자 협약식을 통해 사상 첫 연간 투자 유치 10조원 시대를 맞이할 예정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누적 투자 유치 규모는 30조 7853억원에 이른다.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은 우주항공, 방위, 원자력, 조선해양플랜트 등 미래 성장산업에서 전국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올해 사상 첫 연간 투자 유치 10조원을 넘어서고, 이를 마중물 삼아 경남을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아고다

관광·교류 협력 MOU 체결

부산시는 27일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아고다(Agoda)와 관광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성장 중인 글로벌 OTA인 아고다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첫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아고다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동 마케팅 추진과 맞춤형 관광상품 기획, 부산 관광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의령군

‘아이돌봄 서비스’ 최우수 등급

의령군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A)을 획득하며 2년 연속 우수 기관 대열에 선정되었다.

의령군은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뛰어난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8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며 약 7000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본인 부담금 6000만원을 군비로 편성해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주낙영 경주시장이 25일 시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APEC 정상회의의 경주시 현장상황실’을 찾아 APEC 정상회의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근무자들을 격려한 후 근무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

경주시, APEC 현장상황실 설치

현장 중심 24시간 대응체제 돌입
주낙영 시장, 주요시설 점검 나서

경주시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현장 중심의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APEC 정상회의의 주간(10월 27일~11월 1일)을 앞둔 25일부터 시청 대회의실에 경주시 APEC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종합적인 상황관리와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했다.

현장상황실은 교통, 환경, 상하수

도, 안전, 숙박, 위생 등 9개 분야별 대응반으로 구성되며, 정부와 경북도,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운영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현장상황실 가동에 맞춰 소노캄 경주호텔, 경주엑스포대공원, 보문관광단지 등 주요 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는 경주의 품격과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는 무대”라며 “모든 대응은 글로벌 기준으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김해시 “분청도자기축제 놀러오세요”

제30회 김해분청도자기축제가 11월 4일부터 9일까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과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분청의 시간, 세종을 만나다’를 주제로,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축제의 위상과 도예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

전시 프로그램으로는 30주년 기념

영상 기획전, 세종대왕자 태항아리 특별전시, 분청도자기 특별전시, 제16회 대한민국분청도자대전, 제17회 경남찾사발공모전 수상작 전시가 마련돼 국내 도예 예술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연 프로그램은 조선유랑극단의 퍼포먼스, 뽕뽕이 공연, ‘분청여제인’ 버스킹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 평생학습박람회, 관광객 5만명 호응

포항시 전시·강연 등 프로그램 풍성

포항시는 지난 24일 개막한 ‘제1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2025 포항’이 5만여 명의 관광객 호응 속에 경북 22개 시·군의 다채로운 평생학습을 선보이며 26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흘 동안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는 경북 22개 시·군을 비롯해 150여 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체험 부스를 운영해 각종 전시와 강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개막식에서는 트롯 가수 전유진과 감성 보컬 이석훈의 축하공연이 이어졌고, 평생학습 화합 한마당과 경북 동아리 경연대회, 폐막식으로 마무리됐다. 방승인 선의 ‘행복나눔’ 특강과 인문학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도 시민들

의 호응을 얻었다.

만인당에서는 22개 시·군이 참여한 홍보채널관이 운영돼 지역 특색을 살린 전시와 AR 체험,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인공지능 로봇과의 오목 대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XR 체험존에서는 VR 사격, 증강현실 등 4차 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한 전국 청소년 하브루타 토론회와 평생학습 동아리 작품 전시가 함께 열려 경북 평생교육의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됐다.

포항체육관에서는 도내 평생학습 기관과 동아리 61개 부스가 운영돼 직접 체험과 기관 홍보가 함께 이뤄졌으며, 케이팝대문헌터스 코스프레 체험, 마술 공연, 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로 행사 분위기를 더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울릉군, ‘군민의 날·독도의 날’ 기념식 성료

임선자·정재화 ‘울릉군민상’ 수상

울릉군은 지난 25일 울릉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2025 울릉군민의 날 및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척 143년, 설군 1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독도의 가치와 울릉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독도에서 피어난 80년의 빛, 새로운 울릉의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군민의 다짐’ 영상 상영이었다. 울릉군민 80명이 직접 참여해 “더 친절한 울릉, 더 깨끗한

울릉, 더 자랑스러운 울릉”을 다짐하며 울릉의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기념식은 울릉문화원장의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국민례, 군민상 및 명예군민증 수여,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울릉군민상’에는 임선자 울릉팻캐스터, 정재화 바다환경지킴이, 울릉문화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특별공로상’은 박태하 울릉장학회 이사, ‘명예군민증’은 숙초연탄은행 김상복 대표에게 각각 수여됐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유럽 씨가 감사패를, 서승환·차승우 씨가 표창패를 각각 받았다.

/울릉(경북)=박병률 기자 pbr34@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캐시백 확대

사천시는 침체된 소비 분위기를 개선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사천사랑상품권의 캐시백 혜택을 한시적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는 ‘2025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사천사랑상품권 결제 시 18%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13%였던 적립률이 5%p 오른 18%로 조정되면서, 시민들은 일상적 소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수 있게 됐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영주시

고향사랑기부제 감사 이벤트

영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사은 이벤트를 마련했다.

시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기부자에게 감사사를 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이벤트 기간 동안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모든 참여자에게는 기존 답례품 외에 1만 원 상당의 추가 사은품이 증정된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알리프레시 참전… ‘36조’ 신선식품 시장, 4강 구도 재편

알리프레시 국내산 농산물 등 선배 구독료 없이 1만5000원 ‘무료배송’

쿠팡 ‘로켓프레시’ 기반 매출1위
컬리 네이버와 ‘컬리N마트’ 출격
오아시스마켓 온·오프 동시 공략

이커머스 업계의 마지막 격전지로 불리는 36조원 규모 신선식품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중국계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알리프레시로 참전을 선언하면서다. 알리라는 메기의 등장과 함께 신선식품 시장은 ‘쿠팡-컬리-오아시스-알리’ 4강 체제로 재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알리는 온라인 마트 채널 ‘알리프레시(AliFresh)’를 시범적으로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알리프레시는 알리익스프레스 앱 내에 독립 채널로 운영된다. 시범 단계에서 국내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선보이며 향후 배송 인프라 개선과 함께 생활용품·건강식품 등으로 확장해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성과를 통해 소비자 보호 정책과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알리 관계자는 “알리프레시에 입점한 판매자가 주로 국내 중소기업인 만큼 국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프레시는 다른 신선식품 업체와 비교해 구독료 없이 1만5000원 이상 시 무료 배송을 제공한다는 차별점을 가진다.

알리프레시의 진출로 신선업계 구도가 기존 쿠팡, 컬리, 오아시스마켓에 알리가 참전한 4강 구도로 재편될 거라 전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국내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은 36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올해 1분기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 증가한 3

조7035억원에 달한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가 신선식품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공산품 분야가 상당 부분 이커머스에 잠식된 상황에서 아직 공략하지 못한 신선식품 분야를 잡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이 신선식품 시장을 방어하고 있지만 이커머스 업체는 마지막 남은 시장인 만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며 “신선식품 시장을 잡는 이커머스 업체가 향후 전체 이커머스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은

쿠팡이다. 쿠팡은 로켓프레시를 기반으로 이커머스 업계에서 압도적인 매출을 기록 중이다. 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로켓그로시 포함된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은 올해 2분기 기준 10조30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 늘었다.

컬리는 올해 네이버와 손잡으며 컬리N마트를 출범하고 역직구 플랫폼인 컬리USA를 정식 출시하며 쿠팡을 추격하고 있다. 새벽배송과 무료배송은 물론 상품 셀렉션을 늘리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 플러스스토어에서 선보이며 접근성을 낮췄다. 협업과 함께 이용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와이즈앱·리테일

31일부터 ‘서프라이스 위크’ 스트레이키즈, 20개국에 뽀빠로 알린다

롯데아울렛, 쇼핑축제 개막

400여개 패션·스포츠 브랜드 참여
아울렛 가격에 최대 30% 추가혜택

롯데아울렛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열흘간 전 점에서 연중 최대 규모 쇼핑 축제 ‘서프라이스 위크(Sur-Price Week)’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럭셔리 패션, 스포츠 등 총 4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아울렛 가격에 최대 30%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코치, 보스, 이자벨마랑 등 럭셔리 브랜드와 라코스테, 시슬리 등 패션 브랜드의 F·W(가을·겨울) 상품을 할인한다.

특히 겨울 아우터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뉴발란스는 ‘SUPER WEEK(슈퍼 위크)’를 열고 두 품목 이상 구매 시 추가 30% 할인을 제공하며, ‘하이프리드 롱 벤치다운’, ‘UNI 플라이 숏구스다운’ 등을 선보인다. K2(썬에어 A

CE), 스노우피크(시티캠퍼 다운자켓), 내셔널지오그래픽(헤론 U넥 경량 다운 점퍼) 등 아웃도어 브랜드 패딩은 최대 60% 할인한다. 살로몬은 ‘선더크로스 러닝화’, ‘템포스 러닝 팬츠’ 등을 최대 40% 할인하며,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러닝 상품도 할인해 선보인다.

행사 기간 100% 당첨 주사위 게임으로 최대 100만원 쇼핑 금액권을 증정하며, 주말에는 구매 금액대별 롯데상품권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롯데아울렛 김현영 마케팅팀 팀장은 “서프라이스 위크는 연중 가장 메리트 있는 상품과 가격,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롯데아울렛의 대표 행사”라며,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기 전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으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마련한 만큼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CJ프레시웨이, 당진 ‘고구마 라떼’ 선포

농가 상생 캠페인 ‘맛남상생’ 일환

CJ프레시웨이가 충남 당진의 대표 농특산물인 고구마를 활용한 가을 한정 메뉴를 선보였다. 푸드 서비스 사업장에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제공해 농가 판로 확대를 돕는다는 취지로 기획된 농가 상생 캠페인 ‘맛남상생’ 활동의 일환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당도가 높고 전분감이 풍부한 충남 당진산 고구마가 주재료로 활용됐다. 신메뉴는 CJ프레

시웨이 셰프진이 간편식 테이크아웃 코너, 사내 카페 등 채널별 특성에 맞춰 개발한 ▲고구마 바질치즈 샌드위치 ▲고구마 라떼 등이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7월 당진시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당진 농특산물 유통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농가와의 직거래를 확대해왔다. 올 여름에는 당진 감자를 활용한 ▲감자밥과 로컬 메뉴 ▲꺼먹지 맥적구이를 전국 50여 개 급식장에 제공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스트레이키즈, 20개국에 뽀빠로 알린다

롯데윌푸드, 작년 뽀빠로 701억 수출
전년비 30% ↑, 수출물량 1억개 돌파

한국 대표 스낵 ‘뽀빠로’가 이제 세계인이 즐기는 스낵으로 우뚝 섰다. 롯데윌푸드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 중 뽀빠로는 50여 개국에서 판매된다. 지난해 뽀빠로 수출액은 7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성장, 수출 물량이 처음으로 1억 개를 넘어섰다.

올해는 K팝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를 글로벌 앰배서더로 선정해 ‘Show your love with PEPERO(뽀빠로로 사랑을 나누세요)’ 캠페인을 세계 20개국에서 전개한다. 광고 영상은 공개 일주일 만에 600만 회 이상 조회되며 화제를 모았다. 또한 뽀빠로데이(11월 11일)를 알리는 대형 옥외광고를 뉴욕 타임스스퀘어를 비롯해 국내



뽀빠로데이 옥외광고.

/롯데윌푸드

외 주요 도심에서 선보인다.

국내에서도 2년 만에 대규모 오프라인 이벤트가 열린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는 ‘스트레이 키즈가 숨긴 뽀빠로를 찾아줘!’ 이벤트가 진행돼 소비자들 사이에서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홍대입구, 강남, 성수 등 주요 지역에서도 옥외광고가 전개돼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홈플러스, 가을 슈퍼세일 ‘블랙 홈플러스’

30일부터 2주간… 최대 80% 할인

홈플러스가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앞두고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가을 첫 대규모 슈퍼세일 ‘BLACK 홈플러스’ 행사를 개최한다. 마트·온라인·익스프레스·몰 전 채널이 참여하며, 신선 먹거리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삼겹살, 사과, 밀감, 생굴 등 가을 신선 먹거리와 뽀빠로데이·수능 시즌 상품, 주방·생활용품 등을 엄선해 선보인다. 초저가 ‘홈플러스딜’, 인기 신선식품 ‘최대 반값’, 카테고리별 ‘1+1’ 등 혜택을 마련했다.

홈플러스 몰에서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BLACK 홈플러스, 몰뱅데이 시즌3’ 행사를 연다. 패션, 리빙, 식음 등 7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가을 시즌 상품과 겨울 기획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행사 기간 몰 구매 고객 대상 ‘황금 봉투’ 랜덤 사은품 증정 및 구매 금액대별 사은품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마트와 몰에서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스탬프 이벤트를 열어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홈플러스 온라인에서는 같은 기간 ‘100% 당첨 코인 미션’ 이벤트와 ‘장담(장바구니 담기)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손종욱 기자

동서식품, 타월·양말 등 ‘컬러 오브 맥심’ 패키지

동서식품이 맥심 커피믹스의 친숙한 브랜드 컬러를 담은 ‘컬러 오브 맥심’ 패키지를 한정 출시했다.

1980년에 출시된 이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커피 브랜드로 자리잡은 맥심은 ‘맥심골목’, ‘맥심가옥’과 같은 팝업스토어를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며 좋은 커피 한잔을 통해 전하는 일상 속 행복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알려왔다.

‘컬러 오브 맥심’은 타월, 슬리퍼, 양말, 의자양말, 컵 등 일상에서 친숙한 아이템에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하고자 하는 맥심의 감성을 입혀 맥심 브랜드에 신선한 재미를 더하고 MZ세대의 소비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이번 ‘컬러 오브 맥심’은 타 브랜드나 캐릭터와 협업이 아닌, 맥심 커피믹스 고유의 색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쿠팡, 가전·디지털 할인 내달 9일까지 ‘쿠가세’

쿠팡이 오는 11월 9일까지 가전·디지털 카테고리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쿠팡 가전디지털 세일(쿠가세)’을 진행한다 고 27일 밝혔다.

1년에 단 두 번 열리는 ‘쿠가세’는 쿠팡의 최대 규모 가전 할인 행사다. 이번에는 애플, 삼성전자, LG전자, 다이슨(Dyson) 등 1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참여해 약 3만 개가 넘는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지난 9월 로켓배송으로 공식 론칭한 다이슨이 처음으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매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선착순 특가’ 코너가 특징이다. 과격적인 할인가의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 고객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종욱 기자

한미약품, ‘한국형 비만약’ 상용화 시동… 30% 감량 확인

임상 3상 중간결과 효능 입증
부작용 낮추고 내약성 강화
평택공장 생산으로 공급안정
BMI 30 미만 여성서 효과↑
디지털 융합치료제도 추진

한미약품이 자체 연구개발과 기술을 집약한 ‘한국인 맞춤형’ 첫 비만 치료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 임상 결과, 투약 40주차 최대 30% 체중 감량이란 우수한 효능을 나타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미약품은 27일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 중간 톱라인 결과인 투약 40주차 결과를 공개했다. 64주차까지 투약, 관찰하는 임상 과제지만 올해 안에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계획을 적극 반영해 40주차 중간 톱라인 데이터를 공개한 것이다. 특히 해당 데이터에서 최대 30%에 이르는 체중 감량 효과 등 우수한 효능이 확인됐다.

한미약품의 비만 신약 후보물질인 에페글레나타이드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다. 체중 감량부터 혈당 조절, 심혈관 질환 관리 등에 효능을 갖췄다.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를 적용한 지속형 약물인 것도 특징이다.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기 때문에 위장관계 부작용,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현실적인 체중 관리 장면으로, 한국형 비만 치료제의 효과와 실용성을 강조하는 이미지.

내약성 등도 개선해 준다.

이번 임상 3상은 국내 여러 대학병원에서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성인 비만자 448명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에페글레나타이드 투여 시 위약 대비 체중이 5% 이상 감량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평가한다.

임상 결과, 투약 40주차 시점에서 체중이 5% 이상 감량된 시험 대상자는 전체 79.42%(위약 14.49%)였다. 10% 이상 몸무게가 빠진 대상자는 49.46%(위약 6.52%), 15% 이상은 19.86%(위약 2.90%)로 나타났다.

기저치 대비 에페글레나타이드 투여군의 평균 체중 변화율은 -9.75%로, 위약투여군 -0.95%와 대비된다. 또 여성 시험 대상자 중 체질량지수(BMI) 30k

g/m² 미만군의 체중 변화율은 -12.20%로, 가장 높은 체중 감소율을 보였다.

한미약품 측은 “초고도비만이 아닌 BMI 30 이하 여성에게서 타 시험 대상자 대비 더 우수한 효과를 나타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인 맞춤형 비만 신약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한 체중감량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앞서 발매를 시작한 글로벌 제약사의 위고비, 마운자로 등은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이라면서 이상혈당증(당뇨병 전단계 또는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허가됐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안전성도 입증했다. 구토, 오심, 설사, 위장관계 이상 사례 등의 발현 비율이 기존 경쟁 약물에서의 발현율 대비 두자릿수 이상 비율로 적은 결과가 확보됐다.

한미약품은 첨단 설비를 갖춘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직접 생산한다.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약들의 고질적 문제인 공급 부족, 빈번한 품질 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적응증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한미약품은 당뇨병 치료제로 확장하기 위한 임상에 착수하고 디지털 치료제를 결합한 ‘한국 최초 디지털 융합 의약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융합 의약품은 환자별 개인 건강관리법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내년에 출시될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이 또 한번 비상하는 중요한 마일스톤이 될 것”이라며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 이후 순차적으로 선보이게 될 H.O.P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첫 단추인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성공적 런칭에 한미의 역량을 더욱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에이피알

짱구 한정판 뷰티 에디션 토너패드·피규어 세트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은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큐브와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에이지알에서 ‘짱구는 못말려’ 한정판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업 제품은 메디큐브의 제로모공패드, 딥 비타C 패드, 레드 석시닉 에씨드 필링 패드 등 토너패드 3종과 에이지알의 부스터 프로, 부스터 프로 미니 플러스 등이다.

메디큐브 토너패드 3종의 본품 디자인에 짱구와 흰둥이 일러스트를 활용해 캐릭터 고유의 유쾌한 감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해당 제품 구매 고객에게는 다양한 모습이 담긴 짱구 스티커 1매와 짱구 랜덤 피규어 1종을 제공한다.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와 부스터 프로 미니 플러스에도 짱구 디자인이 적용됐고 헤드케이스와 본체에서 짱구를 입체적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짱구 스티커 2종, 흰둥이 옷을 입은 짱구 피규어, 짱구 세안 밴드 등도 함께 특별 구성됐다.

/이청하 기자

‘유한코스메틱’ 출범… 제약기술로 ODM 도전

〈제조사개발생산〉

유한양행 계열 코스온 사명 교체
연구·품질 중심 ODM 경쟁력 강화
혁신·파트너십·지속성 3대 가치 제시

유한양행 관계사인 화장품 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기업 코스온이 ‘유한코스메틱’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27일 유한코스메틱은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국내 1등 제약사의 과학적 연구 역량을 화장품 산업에 접목한 차별화된 ODM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새로운 비전으로 ‘Trusted

Science, Beautiful Solutions(신뢰받는 기술력으로 고객의 아름다움과 성공을 설계)’를 제시했다. 이는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는 유한양행의 창업정신을 계승하고, 화장품 ODM 분야에서 고객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회사는 유한양행이 축적해온 과학적 연구 노하우와 혁신 기술력을 화장품 분야에 결합해, 제품 기획부터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

히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과 첨단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공급하며 고객사의 브랜드 철학과 목표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유한코스메틱은 ▲혁신을 향한 끊임 없는 도전(Innovation First)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Trusted Partnership)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책임(Sustainable Growth) 등 세가지 핵심 가치도 발표했다. 회사는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최첨단 피부과학 기술 개발, 투명한 소통을 통한 고객 가치 실현, 한

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 이행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성(Excellence), 과학적 접근(Science), 파트너십(Partnership)을 핵심 추구 가치로 설정하고, 모든 과정에서 품질 우수성을 실현하며 체계적인 연구와 지속적 R&D 투자를 통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조일현 공동대표는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CJ올리브영 “고객 중심 콘텐츠 확대”

서터브리티 6기 모집

CJ올리브영이 모바일 앱 내 서터에서 활동할 쇼핑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룹 ‘서터브리티’ 6기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터는 앱 속의 앱 형태로 설치된 뷰티커뮤니티로, 뷰티&헬스를 넘어 웰니스까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올리브영 멤버십 회원이라면 누구나 최신 유행하는 라이프스타일, 메이 크업 노하우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다.

‘서터브리티’ 6기 모집은 오는 11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총 300명을 선발한다. 올리브영 앱 내 이벤트 기획전 페이지나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이후 선발된 인원은 오는 12월 12일 CJ인재원에서 열리는 ‘서터브리티 6기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활동기간은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다.

올리브영은 2023년 말 ‘서터’를 처음 공개하고 매년 두 차례씩 서터브리티를 육성해 왔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강연, 상품, 활동 포인트 등 폭넓은 혜택을 지원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서터브리티 활동을 중심으로 서터 내 콘텐츠를 지속 확장하며 모바일 앱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No.1 뷰티&헬스 커뮤니티이자 놀이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롯데바이오로지스, ADC·품질 경쟁력 알린다

유럽 ‘CPHI 월드와이드’ 참가

롯데바이오로지스는 오는 30일(현지 시간)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CPHI 월드와이드’에 참가한다고 27일 밝혔다. CPHI 월드와이드는 1990년부터 매년 유럽 주요 도시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열리는 제약·바이오 행사다. 이번에는 2400여 개 이상의 기업과 6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롯데바이오로지스 참가도 올해로 네 번째다.

행사 1일차에 진행되는 항체·약물접합체(ADC) 세미나에서 장건희 기술개발부장이 연사로 무대에 선다. 롯데바이오로지스의 ADC 플랫폼, 바이오

접합 개발 및 생산 역량을 설명한다.

같은 날 전시부스에서는 장준영 글로벌BD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한다. 인천 송도 캠퍼스와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캠퍼스를 동시 구현하는 듀얼 사이트 강점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시러큐스 바이오캠퍼스의 5000리터(L) 바이오리액터 운용 등 검증된 품질 경쟁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롯데바이오로지스는 ‘듀얼 사이트’와 ‘검증된 품질 경쟁력’이라는 핵심 전략을 앞세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미국의 리쇼어링(본국 복귀) 정책에도 적극 대응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청하 기자



프리메라 ‘비타티놀 인텐스 바운시 리프트 마스크 크림’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비타티놀 라인 확장

‘마스크 크림’ 선보여

레티놀 2배로 피부탄력 강화

아모레퍼시픽은 고효능 저자극 브랜드 프리메라에서 ‘비타티놀 인텐스 바운시 리프트 마스크 크림’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신제품은 주요 성분으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 레티놀 등을 조합한 비타티놀을 함유한다. 레티놀 단독 사용 대비 2.2배 강력한 탄력 리프팅 효과를 갖춘 것으로 입증됐다. 기존 브랜드 대표 제품인 ‘비타티놀 세럼’보다도 유효성분을 2배 늘렸다.

이와 함께 아모레퍼시픽 최초로 ‘마스크 인 크림’ 기술을 적용해 크림 하나로 매일 마스크 팩 한 것과 같은 기능을 전달한다. 워터, 오일, 캡슐, 필름 등 4종으로 설계됐고 실처럼 늘어나는 특수 제형이 유효 성분 흡수력을 높이고 손실은 방지한다.

얼굴 중심부터 모공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얼굴 중앙부와 턱선 부위에서 각각 2.9도, 2.4도 수준의 탄력 개선에 의한 피부 리프팅 효과가 나타났다.

/이청하 기자

건강창업의 모든 것!



대한홍삼(주)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햅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창업문의 : 1522-7585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햅터그룹

Haetter Group

(주)햅터
(주)햅터방송_브레인TV
(주)햅터라이프_햅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iM금융그룹, 'iM청소년자원봉사대상' 시상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은 대구 달서구 소재 2·28 자유공원에서 '제14회 iM청소년자원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태문 iM금융지주 그룹가치 경영총괄 부사장(가운데)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M금융그룹



LIG넥스원, 국립서울현충원 모역단장 봉사

LIG넥스원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모역 단장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LIG넥스원 임직원과 가족 30여 명으로 꾸려진 'LIG 가족봉사단'은 25일 현충탑 참배 후 자매결연을 맺은 제 30모역에서 화병 옮기기, 비석 닦기, 조화 및 태극기 교체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LIG넥스원



셀트리온, 영종도 일대 야생조류 보호 활동

셀트리온은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녹색연합과 협력해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야생조류 보호 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셀트리온 임직원은 인천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도로변에 설치된 투명 방울벽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조류 충돌방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셀트리온



롯데웰푸드, '닥터자일리톨버스' 올릉도 방문

롯데웰푸드의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이 140회차 진로 봉사료 대한민국 최동단 지역인 올릉도를 찾았다.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치과 진료와 구강 검진을 진행하고 올바른 양치법과 자일리톨 취식 습관의 이로운 등 보건교육도 실시했다. /롯데웰푸드



하이트진로, '감사의 간식차' 행사 마무리

하이트진로가 '감사의 간식차'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4월 전남 무안·목포·함평과 경북 포항·김천을 시작으로 5월 세종과 경남 창원, 9월 전북 김제를 거쳐 10월 경기 용인까지 전국 15개 소방서에 약 1800인분의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며 전국 곳곳을 누볐다. /하이트진로

부음

▲권태경씨 별세, 강창동(교촌에프앤비 커뮤니케이션 부문 사장)씨 병부상=대구파티마병원장례식장 202호(특실), 발인 29일. 053-958-9000

‘현대 모빌리티 플레이그라운드’ 성료

현대차, 자동차 주제 소통 강화… 고객 만족도 높인다

각계각층 자동차 애호가 600명 몰려
기본성능 점검 등 ‘비포 서비스’ 제공

현대차가 지난 25,26일 양일간 진행한 ‘2025 현대 모빌리티 플레이그라운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대차가 자동차 산업과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관련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자동차 놀이터’ 콘셉트의 커뮤니케이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자동차 인플루언서와 구독자, 자동차 동호회 회원, 자동차 전문 기자 등 약 6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자동차라는 공통의 주제로 서로 소통했다.

현대차는 이번 행사를 위해 자동차의 성능과 재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환경



‘2025 현대 모빌리티 플레이그라운드’ 행사장 전경.

/현대차

을 통해 차량의 가속 성능부터 급격한 코너링 등 차량 성능과 주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집카니’ ▲아반떼 N, 아이오닉 5 N, 아이오닉 6 N 등 현대차의 고성능 차량을 전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체험하는 ‘택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한 ▲싼타페 적재공간에 다양한 크기의 박스를 손쉽게 가장 많이 채우는 경쟁 챌린지 ‘트렁크 테트리

스’ ▲실제 피트스탑처럼 빠르게 휠을 교체해보는 ‘피트스탑 챌린지’ ▲구성된 공간 안에서 서라운드 뷰 기능을 활용해 차를 돌려 나오는 시간을 겨루는 ‘서라운드 뷰 탈출왕’ 등 참가자가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인플루언서의 구독자들이 직접 보유한 개성 넘치는 현대차를 전시하고 최고의 차량을 뽑는 ‘마이 현대 콘테스트’와 토크쇼도 진행

HMM, ISO 37001·37301 통합 인증

(부패방지경영시스템·규범준수경영시스템)

최원혁 대표 “지속가능 성장 실현”

HMM이 글로벌 인증기관 LRQA(로이드인증원)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ISO 37001은 기업의 뇌물·부패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ISO 37301은 법규 준수와 관련 리스크를 통제·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모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최고 수준의 국제인증이다.

HMM은 이번 인증을 위해 ▲윤리·준법 경영 방침과 관리 규정 수립 ▲대표이사 주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선포식 개최 ▲부서별 의무 법령 식별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전 임직원 윤리·CP 교육 대면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CP 도입 이후 임직원 교육을 해외 권역까지 확대하고, 부서별 공정거래 담당자 지정, ‘컴플라이언스



지난 24일 여의도 사옥에서 개최된 ISO 37001, 37301 인증서 수여식에서 최원혁 HMM 대표이사(오른쪽)와 LRQA 포티스 캠퍼리스(MR. Fotis Kampouris) 아시아·태평양 총괄부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MM

데이’ 개최, 윤리·준법 실천 서약 시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최원혁 HMM 대표이사는 “이번 인증 취득은 윤리와 준법을 기업 핵심 가치로 삼고 노력해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공영홈쇼핑, ‘지역 상생협력관’ 첫 성과

대왕, 9000만원 주문 기록

공영홈쇼핑이 올해 처음 시행한 ‘지역 상생협력관 지원사업’에서 첫 성과를 냈다.

27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전북 지역 상생협력관이 발굴한 ㈜대왕의 자연쓰임 라벤더 4겹 화장지가 지난 21일 50분간 진행된 TV생방송에서 9000만원의 주문액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론칭 방송을 끝냈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화장지 전문기업 대왕의 38년 제조 노하우가 담긴

화장지는 4겹의 탁월한 흡수력과 은은한 라벤더향을 자랑한다. 국내제조, 천연펄프 100% 사용, 무색·무형 광증백제가 특징이다.

지역 상생협력관 지원사업은 공영홈쇼핑이 올해 최초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발족한 판로 지원사업이다. 상품 관련 전문 경력이 10년 이상 된 전문가를 지역 상생협력관으로 임명해 과전하는 형태다. 지역에 직접 찾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하고 육성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CJ온스타일, ‘컴플라이언스 어워즈’ 대상

준법경영 주효… 기업 부문 수상

CJ온스타일이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에서 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준법 경영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23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렸다.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는 준법 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 및 기업을 선정해 시상

한다.

CJ온스타일은 이번 시상에서 ▲사업 특성을 반영한 전사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구축 ▲체계적 모니터링 운영 ▲성과 연계 보상 시스템 완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준법경영에 동참해 준 모든 임직원의 노력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도전하세요

동아쏘시오그룹 내일 오전 10시

동아쏘시오그룹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제43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수석문화재단,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동아에스티가 후원하는 마로니에 여성 백

일장은 올해로 43회를 맞이했다.

여성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동화) 중 한 부문을 선택한다. 시제 및 글제는 당일 현장에서 추첨해 발표되며 네 개 글제 중 하나를 쓰면 된다. 장원 3명, 우수상 3명, 장려상 9명, 입선 14명 등 총 29명을 선발해 총상금 40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mleee236@

동아제약 ‘파티온’, 장병 피부관리 지원

〈트러블관리 전문 브랜드〉

‘노스카나인 세럼’ 2000개 전달

동아제약의 트러블관리 전문 브랜드 파티온이 국군의 달을 맞아 육군본부 주최 행사에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 2000개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육군본부가 장병들의 긍정적인 복무 자세와 자기계발을 독

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드림(DREAM)’ 정책의 일환 행사에 참여하는 장병들의 피부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티온은 지난 14일 진행된 기초체력 경연대회에 1차 전달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품을 순차적으로 전달한다.

/이청하 기자



IZAKAYA
NAMU
이자카야 나무

EVENT

1+1

정식
이벤트



이벤트 기간 | 2025년 10월 15일(수) ~ 10월 30일(목)

장소 | 이자카야 나무 15개 전 지점

참여방법 | 정식 주문 고객 (저녁 7:30까지 주문 가능)

혜택 | 저녁 정식 6종 1+1 (동일메뉴 1+1, 단품 제외)

부동산과 국민의 눈높이



안 상 미 기자의
현장클릭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갭투자’ (전세 끼고 집 매수) 논란으로 이제는 사임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전 차관의 사과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도 알려졌다.

사과 발언을 해석해 보면 이렇다. 투기도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 원래는 문제가 없다. 다만 공직자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할 수도 있으며, 이 점을 받아들여야겠다.

사과를 접한 많은 이들은 의구심부터 들었다. 과연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가. 공직자라고 일반 국민 대비 특히 높은 잣대를 들이댔는가. 지난 23일 이 전 차관의 대(對)국민 사과문이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되자 여론이 더 악화된 이유다.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했던 발

언만큼이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못했다.

눈높이가 높았던 것은 오히려 이 전 차관이었다. 이 전 차관이 주도한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전까지 전례가 없던 초강력 규제다.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갭투자를 차단하는 게 핵심인데 이 전 차관 처럼 매매를 결정한 주체가 본인이라는 해명도 통하지 않고, 실거주 목적인데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너무나도 높은 정부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해 허둥대는 것은 오히려 국민이다.

사임도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확산한다면 지금이라도 판교 아파트를 파는 것이 상식적이다. 실제로는 아파트를 지키고 직을 버렸다.

또 다시 ‘국민의 눈높이’가 거론됐다. 이번엔 이재명 정부 들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주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개

인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13년 재건축을 앞두고 있던 서울 개포동 주공 1단지 노후 아파트를 8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현재 정부가 제시한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해외 파견 때문이지만 실거주가 아니다. 당장 실거주가 아니라면 투기다. 귀국 후 실거주가 필요한 시점에 샀어야 맞다. 이전 주택매매를 하며 전세를 놓기도, 대출을 받기도 지금은 모두 쉽지 않다. 일반 국민이라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 그걸 것”이라고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터.

잠잠하던 대통령실이 10·15대책에 대해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교육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잠잠하던 수도권 집값이 들쭉인 것은 ‘갭투자’ 투기꾼 때문이 아니라 대책없는 공급 절벽 때문이었음을 아직도 보지 않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는 여기에 있다.

/smahn1@metroseoul.co.kr

내 친구, 내 연인 AI를 사귀는 법



김지수 수첩
김 서 현
(IT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도구이자 친구이자 연인이 됐다. AI와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의 영화 ‘그녀(Her)’는 지난 2013년 개봉 당시 과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개봉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23년 등장한 챗GPT는 영화 그녀 속 상황을 현실로 만들었다.

지난 7월 와이즈앱리테일이 발표한 2025년 6월 AI 챗봇 앱 사용 현황 결과는 무척 의미심장하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에서는 챗GPT가 1위였지만, 사용시간 순위에서는 제타가 5248만 시간으로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사용자가 제타 앱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로, AI 캐릭터

채팅의 높은 몰입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실제로 기자가 직접 사용해본 제타는 마치 친구와 대화를 하는 듯한 착각을 줬다. ‘여고생’의 성격을 가진 캐릭터와 대화를 시작하자 캐릭터는 자연스럽게 숙제를 했냐며 묻고, 밥을 먹지 않았다는 기자의 답에 먹어야 한다며 무엇을 같이 먹겠냐고 제안했다. 잠시잠깐이나마 실제 여고생 친구가 생긴듯한 느낌이었다.

문제는 과몰입이다. 아직 한국에서는 인명사고가 없었으나 해외에서는 유사 서비스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14세 청소년이 AI 챗봇 ‘캐릭터.AI’와 대화에 몰입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해, 개발사가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발전한 생성형 AI 기술은 감정의 대체와 의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AI 챗봇은 사람의 언어를 흉내 내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감정을 ‘반사’하고 ‘돌려주는’ 존재로 진화했다. 문제는 사용자가 그 경계를 인지하지 못할 때다.

인간과 AI의 대화가 정서적 위안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진짜 관계나 애착으로 확장될 때는 위험해진다. 전문가들은 이런 ‘AI 과몰입’이 특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현실의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챗봇을 통해 대체 만족을 얻으면서, 점차 현실로 복귀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AI는 ‘도구’로서 사용될 때는 강력한 지원군이지만, ‘감정의 주체’로 놓이게 되면 인간의 삶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AI 시대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건 기술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 자신이어야 한다.

/ seoh@

오늘의 운세 10월 28일 (음 9월 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투자를 남에게 맡기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 48년생 항상 좋을 수는 없는 일. 60년생 남들도 겪는 직장인의 고민. 72년생 세상을 감탄시키는 글재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84년생 인생은 긴 마라톤이니 늦지 않았다.



37년생 상처를 입었으나 하소연할 곳이 없다. 49년생 주말농장을 계획. 61년생 시련 없는 인생은 없을 것. 73년생 내 그릇을 알게 되니 행복하다. 85년생 과거에 배운 외국어로 뒤늦게 인정 실력은 인생에서 오래 머무는 보물.



38년생 소소한 일에 너무 아파하지 말자. 50년생 어느 시대나 거짓 정보가 있다. 62년생 양심과 양치를 알아보자. 74년생 풍수의 관점에서 집 안 청소를 일과로. 86년생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으니 근본을 튼튼하게 공부해야.



39년생 힘들게 일과노동은 결과가 인정된다. 51년생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상사가 내 옆에. 63년생 실력포함 성실함은 큰 힘이다. 75년생 강남에서는 개천에서든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자. 87년생 능력을 내세워 허세 부리지 않아야만.



40년생 자연인이 되고픈 데. 52년생 웅크리고 있는 하루이니 새벽부터 종일 운전 주의. 64년생 편한 것만 찾으려 하지 않도록. 76년생 집안의 안녕을 기원해보는 기도를 시작. 88년생 내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상관없으니.



41년생 비행기를 타는 것도 지못지못. 53년생 인간은 상황의 동물이라고 하니 돈을 사랑할 수밖에. 65년생 기다리는 것도 처세의 하나. 77년생 조상님의 가피를 마음에 지녀보자. 89년생 화수입일출하니 영원히 가는 재물이 없다.



42년생 입바른 말을 한다고 의인은 아닌 것. 54년생 시간은 화살처럼 빨리도 다가온다. 66년생 상식선에서 정해진 규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78년생 언젠가 내 지위에서 오르는 날이 있을 것. 90년생 시련이 있으면서 삶은 원숙해진다.



43년생 부동산이나 건축업으로 운이 띄는 길림길에서다. 55년생 보양식을 먹고 행복할 날. 67년생 훗날의 이상에 관심보다는 직장에 충실. 79년생 냉정하게 현실을 보는 통찰력은 마음을 닦는 것. 91년생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44년생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주더라도 다 읽지를 못한다. 56년생 가정을 이루고 안정을 원하는데 뜻을 이루. 68년생 오히려 맑은 하늘이 반갑다. 80년생 머리를 염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활동. 92년생 이동과 변동으로 재산형성.



45년생 통찰력이 대단하니 판단도 현명. 57년생 대추 한 알도 익으려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69년생 운을 얻으니 해외파견도 승산 있다. 81년생 늦지 않았으니 뭐든 찾아 기술을 배워보자. 93년생 흐르는 변화의 현상을 받아들여야.



46년생 부동산의 귀재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58년생 천둥과 번개가 지나가면 맑은 하늘이 온다. 70년생 누구를 닮하는 습관을 버려라. 82년생 어느 인생이나 굴곡은 만난다. 94년생 인생의 틀이 다시 한번 움직이니 뒤늦은 운이 온다.



47년생 소녀 시절로 가고 싶다. 59년생 세상 이치를 알고 시작보다는 눈을 길러라. 71년생 이상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접도록. 83년생 직장의 일꾼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95년생 힘겨움을 이겨낸 힘으로 더 달한 열매가 맺어지는 이치가 있다.

김상회의四季

이일대로, 때를 기다리는

고대 중국의 다양한 병법 중에서 전쟁이나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전략적 지혜를 모아 놓은 게 36계이다. 삼십육계의 하나인 이일대로以逸待勞는 ‘편안함으로써 피로한 적을 맞이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자기의 힘은 아끼고 평정을 유지하며, 적이 지치고 혼란스러울 때를 기다려 반격하는 지혜다. 명리학에서는 인간의 삶을 천지의 기운 속에서 파악하고 타이밍 균형 흐름의 조화를 중시하는 데에서 인생은 곧 기운의 순환이라 한다. 사주팔자에 드러나는 오행의 생극제화는 사람마다 다른 리듬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은 불길처럼 급히 타오르고 어떤 사람은 물처럼 유유히 흐르며 또 어떤 사람은 흙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킨다. 그러나 공통된 원리는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좋은 기운을 가졌더라도 시운이 무르익지 않으면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이는 마치 장수가 성문을 닫고 군사를 쉬게 하며 피로한 적이 다가올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일대로는 운의 때를 아는 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명리학에서 운세는 사람마다 대운과 세운의 흐름 속에서 강세와 약세가 반복된다. 강세의 시기에는 앞장서 나아가도 되지만 약세의 시기에는 무리하지 않고 조용히 기운을 가다듬는 것이다. 이를 잘못 판단하면 공든 탑이 무너지니 천명과 시운을 따르며 나의 기운을 가다듬어야 한다.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을 때 당장 해결하려 하기보다 차분히 운세의 기운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태도야말로 ‘편안함으로 피로를 맞는’ 지혜이다. 이일대로는 인생의 긴 여정에서 승리하는 삶의 리듬을 제시한다. 기다림은 포기나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가장 적극적인 준비이며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운명의 흐름과 기운의 보존은 곧 계획의 내적 의미를 반영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7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8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할힘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8	9	5	6	2	8	2	7
2	8	8	2	1	7	6	9	9
7	5	2	6	8	9	2	1	8
2	1	6	7	1	2	9	8	9
9	6	2	9	8	8	1	7	2
9	2	8	8	9	2	7	6	1
8	9	7	8	9	1	9	2	6
6	9	5	1	7	8	2	6	2
8	7	1	2	1	2	6	9	8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결란스도쿠110

초·중·고·대 120

서울교육청, 문해력·수리력 검사 해외·부산 학생 포함 10만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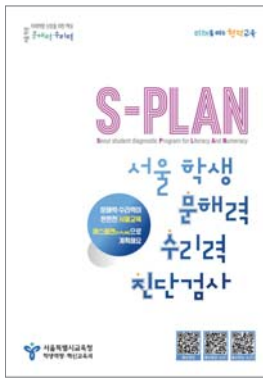
서울교육청, 기초학력·역량 진단
초·중·고 총 665개교, 10.2만명
교과학습 기반 범교과적 기능 점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을 넘어 재외한 국학교와 부산지역 학교까지 참여를 확대하며 학생들의 기초 학력과 미래 역량을 진단하는 대규모 평가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정근식)은 서울 학생들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서울 에스플랜·S-PLAN)'를 서울 초·중·고등학교와 재외한국학교, 부산지역 학교 등 총 665개교, 약 10만2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미래 학력의 기초가 되는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하는 것으로,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범교과적·도구적 기능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해력은 학습과 삶의 맥락에서 다양한 글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수



리력은 학습과 일상에서 수학적 사고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뜻한다.

검사 문항은 일상생활과 학습 상황을 반영해 문해력과 수리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교과 융합형 문항이나 실제 생활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문항 등이 포함된다.

'2025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 검사'에는 서울의 희망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뿐 아니라 재외한국학교 및 부산의 학교까지 참여한다. 올해 참여 학교는 665교로, 지난해(525교)보다 약 26% 증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중국, 태국, 이집트 소재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글로벌 학생 역량 진단과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또 지난 9월 업무협약을 맺은 부산지역 62교(학생 1690명)도 참여해 진단뿐 아니라 수업과 평가 혁신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진단검사는 컴퓨터 기반 검사(CBT)로 진행되며, 학교별 일정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 기간을 두 차례로 나눴다. 1차는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2차는 12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다. 초등학교는 과목당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씩 문해력 I·II, 수리력 I·II 등 4과목을 치른다.

이번 검사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월 개통한 '서울 학생 미래 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실시된다. 이 시스템에는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다양한 평가 도구가 탑재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소양교육 지원협의체 운영 ▲지도 자료 개발·보급 ▲전문가 양성 연수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교육부,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찾는다

대학운영 혁신사례 공모전
우수사례 발굴, 전국에 확산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학이 규제 완화를 통해 추진한 자율적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전국 대학에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그간 ▲전임교원 교수 시간 자율 운영 등 교원 제도의 유연성 확대 ▲소단위 전공과정 및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 강화 ▲학과 개편 지원을 위한 설립·운영 기준 완화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정원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공모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며, 대학규제혁신으로 개선된 제도를 실제 대학 운영에 적용한 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2024년 공모에서는 ▲울산 대학교의 '지역 내 멀티캠퍼스 구축 및 운영'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전공자율선택제 전면 시행' ▲경상국립대학교의

'소단위 전공과정 근거 마련'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규제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계획 수립 단계나 추진 중인 사례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는 전문가 평가(1단계)와 국민 참여형 온라인 투표 '소통24' (2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해 교육부장관상(대상 1개교, 우수상 4개교)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모든 대학으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법령 개정이나 규제특례를 바탕으로 추진한 사업, 프로그램, 학칙 개정 등의 사례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이메일(kje6733@korea.kr)로 진행되며, 결과는 12월 말 발표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학령 인구 급감과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대학의 혁신 역량이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대학 현장의 혁신 사례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한강버스 내달 1일부터 재개... 품질 보장

서울시, 약 300회 시범 운항 실시

지난달 29일 안전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해 잠시 멈췄던 한강버스가 약 한 달간의 점검을 마치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한강버스는 11월 1일 첫차인 오전 9시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한강버스는 데이터 축적, 성능 안정화 및 운항 인력의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해 승객 미탑승 상태로 성능 안정화 시범 운항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약 300회 이상의 반복 운항을 실시하며 선착장 점·이안 및 교각 통과 등 실제 운항 여건과 동일한 훈련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했다.

운항 재개 시에는 당초 정시운항 시간보다 2시간 빠른 오전 9시에 운항을 시

작하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6회 운항한다. 또한, 항차 별 2척의 선박을 배치해 지난 정시운항 초기에 발생했던 결항 상황을 방지한다.

한강버스는 동절기 기상 및 운항 환경 변화·적응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하루 16회 운항 스케줄을 유지할 예정이며, 내년 3월 출·퇴근 급행 노선(15분 간격) 포함 오전 7시~오후 10시 30분, 총 32회로 운항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선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총 7개 선착장(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을 운항한다.

요금은 편도 성인 3000원(청소년 1800원/어린이 1100원)으로 변동 없이 운영되며 지난 8월부터 선착장 연계를 위해 연장·신설된 시내버스도 현재 정상 운항 중이다.

/이현진 기자

2026 수능 응시생 11만명... 재학생 55.4%

2026학년도 수능 세부계획 발표
시험장 확대, 감독체계 강화 등
안정적 시험 운영 만전 기할 것

올해 서울지역 수능 응시생이 전년보다 3400여 명 늘어난 11만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시험장 확대와 감독 체계 강화 등 안정적인 시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서울지역 수능 응시원서 접수 인원은 총 11만4158명으로, 지난해(11만0734명)보다 3424명 증가했다. 재학생은 6만3283명(55.4%), 졸업생은 4만6679명(40.9%), 검정고시 등 기타 자격자는 4196명(3.7%)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만9531명(52.1%), 여학생이 5



만4627명(47.9%)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1개 시험지구, 228개 시험장에서 총 4332개의 시험실을 운영한다. 경증시각, 중증시각, 중증청각,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을 위한 시험편의제공 시험장 4개교를 마련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남부교도소 내 별도 시험실도 운영한다.

감독관을 비롯한 시험 관계요원은 1만9793명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

험생 유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안내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예비소집 시에는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특히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감독관 대상 교육을 사전에 반복 실시하고, 방송 및 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침보완과 관계요원 교육을 통해 시험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모든 수험생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수험생 모두가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경기 시흥에도 수요응답형 '똑버스' 달린다

27일부터 운행... 주요 생활권 연결

경기도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DRT)'를 27일부터 시흥시에서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도내 똑버스 운행 지역은 20곳으

로 늘었다.

시흥시 똑버스는 5대 차량으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운행된다. 신천역과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 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신천동·대야동·은행동 등 지역 내 주요 생활권을

연결한다.

'똑버스'는 승객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생성해 운행하는 AI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로, 2021년 파주 운정신도시를 시작으로 현재 20개 시군 318대로 확대 중이다.

누적이용자수는 1024만명, 만족도는 84.7점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흥(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美 이민당국 단속 피하려던 20대男... 트럭 치여 숨져
▲美·中 '무역 전쟁' 일단 소화 국면... 30일 한국서 '정상 담판' 전망
/사진 뉴시스

▲트럼프, 말레이 일정 마치고 도쿄로 출발... 28일 미일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일대 드론 공습... 도네츠크 일부 탈환

▲크렘린 "새 제재가 러-미국 관계 회복 어렵게 해" 밝혀
▲러 외무 "미러 정상회담,美측에 달려...영토 문제 논의될 것"



알리프레시 참전
신선식품 시장
4강 구도 재편
L1

metro®

Life

한미약품
한국형 비만약
상용화 시동
L2



선한 콘텐츠, 좋은 제도로... 여성의 삶에 찬란한 변화 이끌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은 결국 사람의 일을 더 낫게 바꾸는 일'이란 믿음을 중심에 둔다. 지난 1946년 민족자본으로 출발한 국내 최초의 보험사라는 뿌리 위에, 고객의 목소리를 제도에 연결하는 거버넌스를 축으로 세웠다. 2013년부터 소비자평가단을 운용해 왔고,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9회 연속으로 이어왔다. 최근에는 고객서비스 조직을 '소비자보호실'로 확대하고 최고고객책임자(CCO)를 부사장급으로 격상하는 등 의사결정의 초점을 더 분명히 했다.

철학은 현장에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진다. 한화손보는 여성 웰니스 지식플랫폼과 명상 채널, 중·장년 여성 건강 리포트 등 디지털 공익 콘텐츠를 확장했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 뛰는 도심 러닝, 지역 아동 동화 기증처럼 지역사회와 미래세대를 잇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여성 운전자 응원, 달리기 습관 형성 같은 참여형 캠페인을 더해 '콘텐츠→경험→습관→제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 '여성 특화' 보험사

한화손보의 '시그니처 라이브러리'는 '하루 5분, 요일별 테마 아티클'로 여성의 균형 잡힌 일상을 돕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특정 주제에 치우치지 않고 다방면의 콘텐츠들을 제공해 독자의 균형 잡힌 '읽기 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시그니처 라이브러리는 올해 3월 공개 이후 3개월 만에 누적 활성 방문자 7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2030 여성 독자층에게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자기계발, 커리어, 감정 관리 관련 2030 여성들의 평소 고민을 짚어내는 '월메이드 콘텐츠'가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 고객과 새로운 접점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멘탈케어에선 배우 유승호의 내레이션을 입힌 명상 유튜브 '시그니처 테라피'를 공개했다. '시그니처 테라피'는 한화손보의 대표 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3.0' 출시 기념으로 지난해 11월 론칭한 유튜브 채널이다. 개설 약 2개월 만에 2만5000명 구독자, 누적 60만 조회를 기록해 스트레스·수면·감정 관리에 목마른 20~50대 여성 시청자에게 '도파민 대피소'가 되고 있다.

여성 생애주기 전환기에 맞춘 리서치도 병행한다. '뉴(new)년기 트렌드 리포트' 1편 '하프 시그널'은 남녀 갱년기 경험자 1000명 심층조사로 '갱밍아웃 확산 vs 공감 결핍' 현실을 짚었다. 호르몬 치료를 넘어 영양·정서·생활을 아우르는 '토탈 라이프 매니지먼트'도 제안했다.



여성 웰니스 위한 콘텐츠 채널 운영
균형잡힌 일상 돕고, 새 가능성 발굴
갱년기 등 생애주기 맞춤 리서치도

유모차 끌고 달리는 '유아차 런' 개최
건강 루틴 만들고, 참가비 일부 기부

여성 운전복귀 위한 연수·상담 지원
러닝 등 좋은 습관 쌓으면 리워드 제공
소비자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또한 여성 암 경험자의 자존감 회복을 돕는 '힐링LIFE' 프로그램을 확장해 이미지 메이킹·토크콘서트·문화예술 체험 등으로 '다시 일상으로'의 용기를 북돋고 있다.

◆ 아동·청년·가족, 미래세대의 연결망

한화손보는 서울시와 오는 11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여의도공원까지 7km 구간에서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하는 2025 서울 유아차 런'을 공동 개최한다. 유모차를 끌고 달리는 토끼반, 검은 거북이반, 유아차 졸업반으로 나뉘어 가족이 함께 호흡하면서 도심 풍경을 즐기는 이색 마라톤으로 최대 5000 가족이 함께한다. 완주 가족에게는 배번호·기념 티셔츠·반다나·키즈 삼푸·로션이 제공된다. 광화문 '건강쑥쑥 유아 케어존'과 여의도 포토존·메달 각인 등 현장 프로그램도 촘촘하다. 참가비 일부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기부된다.

유아차 런이 가족의 건강 루틴을 만드는 장이라면, 서울시와 함께 여는 '설렘, 북나잇'은 청년의 관계 루틴을 설계하는 무대다. 설렘 북나잇은 청년들의 새로운 관계와 성장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로 '가족·아동·청년'으로 이어지는 생활 속 상생의 스펙트럼을 완성한다.

정원 100명에 3568명이 신청(경쟁률 35.6

대 1)했고 여성 신청자가 73%로 관심이 집중됐다. 현장에서는 최종 23커플(매칭률 46%)이 탄생했다. 참가자들은 "책이라는 공통 주제가 대화를 쉽게 열어줬다"고 소감을 전했다.

◆ 참여형 캠페인, 소비자중심 경영

한화손보는 오는 11월 9일까지 면허는 있지만 각기 다른 이유로 운전을 쉬고 있는 여성의 '복귀'를 돕기 위해 '면허정비소' 캠페인을 진행한다. 해당 캠페인은 캐롯 합병 이후 '생활 속 모빌리티 보험'을 재정의하는 상징 프로젝트다. 운전 복귀를 위한 현실적 지원과 재도전을 응원하는 의미로 차량 지원, 연수, 심리상담, 응원키트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사연을 통해 이용자의 불안과 장벽을 데이터로 수집·개선에 연결한다.

일상생활 측면으로는 '좋은습관+더하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캐롯앱·런데이앱에서 신청 후 4주 10회 러닝 미션을 수행하면 완주자에게 시드니·다낭 마라톤 참가권(왕복 항공권·숙박·트레이닝·여행자보험 포함) 등 실용적 리워드가 제공된다. '작지만 지속적인 달리기'가 일상을 바꾸는지 데이터로 확인하는 실험이기도 하다.

한화손보의 모든 활동의 뼈대는 '소비자중심경영'이다. 한화손보는 10월 16일 '19기 소비자평가단'을 출범시켜 상품·서비스·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정례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CCM 9회 연속 대상 수상, 소비자보호실 확대까지 '고객 의견→현장 개선'의 선순환을 제도화하고 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여성 웰니스를 선도하는 금융 파트너로서 고객 의견을 적극 수용해 더욱 강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고객 신뢰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①여성의 균형잡힌 일상을 돕는 디지털 플랫폼 '시그니처 라이브러리'
②한화손해보험과 서울시가 개최한 '설렘, 북나잇'
③'2025 서울 유아차 런' 이미지.
④한화손해보험 본사에서 열린 제 19기 소비자평가단 발대식에서 주요 임직원들과 고객 패널이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한화손해보험

메트로 한줄뉴스



▲유승민 체육회장 "탁구협회장 시절 배임 의혹 사실 아니야"
▲유승민 체육회장 "IOC로부터 전북올림픽 부적격 판정 아닌 조연 받은 것" /사진 뉴시스

▲기선 빼앗겼지만 기회 있는 한화...2차전서 반격 노린다
▲한일, 'K-문학'으로 마주하다...한국문학번역원, 11월 도교서 문학행사 개최

▲교향, 2027년 8월 초 WYD 계기 방한...“北 청년들 함께하길 바라”
▲정명훈 예술감독, 20년만에 국내서 오페라 ‘카르멘’ 지휘